

2022 가을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치유관광의 대두와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경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배현정 bhj923@krei.re.kr, 서동주 tjsuh@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71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7
5. 금융·환율	13
6. 세계경제	16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3
4. 농축산물 수출입	25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1
2. 엽근채소	36
3. 양념채소	42
4. 과일	49
5. 과채	57
6. 축산	66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 1. 조사 개요 73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 75

특별주제

- 치유관광의 대두와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89
-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과 시사점 117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22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늘어 전기 대비 0.3% 상승함.
- 2022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9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66만 명으로 나타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2.9% 증가함. 2022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증가 폭 축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108.8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 4.1% 상승함.
- 2022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42.9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함.
- 2022년 8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5%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7%, 0.4% 증가하였음. 2022년 9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국내외 통화 긴축 기대 강화,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2022년 3/4분기 원/100엔 환율을 제외한 원/달러 환율, 원/유로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2년 2/4분기 미국 경제는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지만, 산업생산 감소 전환, 높은 물가수준, 주택시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중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여타 실물지표는 개선됨. 일본 경제는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엔저 지속과 물가 상승세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 유럽 경제는 고물가 유지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심리 악화가 지속됨.

II. 농촌경제 동향

- 2022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5.5% 증가함.
- 2022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3.2% 상승함.
 - 부류별로 청과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곡물, 축산물은 하락함
- 2022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전기 대비 2.3%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상승함.
 - 노무비, 경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25.2%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하락함.
- 2022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8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3.5%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2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30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109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치유관광의 대두와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 치유관광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여가를 통한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활동을 의미하며(김진옥, 2015), 이러한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건강에 대한 인식증대 및 여행을 통한 심신 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치유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름.
-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촌복지 향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줌.
- 치유관광의 한 분야인 농촌 치유관광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 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을 말하며, 농촌 치유관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농촌관광의 인식증대, 도시민의 탈도시 수요 증가와 귀농·귀촌 증가, 마지막으로 기존 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으며, 농업정책의 중점 변화,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치유관광 증대와 농촌 융복합사업의 확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재인식으로 치유농업이 대두됨.
- 농촌은 현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강과 복지비용의 증가, 사회적 갈등과 폭력 증가 등 많은 국가적 문제 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됨.
- 농촌 치유관광은 관광 산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멸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농촌 치유관광의 발전을 위한 중요 방안으로 치유농업과의 연계, 치유관광 관련 법·제도적 기반 확충, 치유관광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화, 치유관광의 중장기적 사업화 추진이 있음.

2.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과 시사점

- 정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주요 채소류(13개 품목, 19개 작형)에 대한 채소류 주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산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은 2014년 6월에 마련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왔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기존의 주산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품목(양배추)을 포함하여 일부개정(2022.09.30.)된 신규 주산지 지정 기준이 고시되었음.
- 2022년 2월 기준 각 지자체에서 고시한 채소류 주산지는 110개 지역이며, 주산지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규 지정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채소류 지정 주산지의 위상 확립, 그리고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할 경우, 주기적인 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주산지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별 재배면적 확보 가능 품목, ② 재배면적 상위 품목, ③ 노지재배 중심 품목, ④ 전국 단위의 집적화가 형성된 품목, ⑤ 관련 통계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품목, ⑥ 수급안정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성이 있음.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역할 강화 및 효율화 방안과 주산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사전적·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늘어 전기 대비 0.3%, 원계열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1.3%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p				2022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1.3	-3.0	2.3	1.2	1.7	0.8	0.2	1.3	0.6	0.7	0.3(3.1)
민간소비	-6.6	1.1	0.3	-1.1	1.2	3.3	0.0	1.5	-0.5	2.9	1.9(5.9)
정부소비	1.7	0.7	0.3	-0.2	1.6	3.5	1.4	1.5	0.0	0.7	0.2(2.4)
건설투자	1.4	-2.7	-2.3	2.4	0.1	-1.5	-2.0	2.0	-3.9	0.2	0.4(-1.5)
설비투자	-0.4	1.5	5.9	-0.2	6.8	0.9	-3.0	-0.2	-3.9	0.5	5.0(1.3)
총 수 출	-0.7	-14.5	15.7	3.2	4.1	-0.7	1.1	3.2	3.6	-3.1	1.0(4.6)
총 수 입	-2.6	-5.4	6.2	-0.2	5.6	2.7	-0.3	3.5	-0.6	-1.0	5.8(7.7)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2.10.27.)」,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9.16., 2022.10.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소비, 건설·설비 투자, 수입, 수출 모두 증가하였음.
 - 202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등이 늘어 1.9%,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증가함.
 - 2022년 3/4분기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 0.4%,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5.0%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등이 줄었으나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1.0%, 수입은 원유,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5.8%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을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은 증가하였음.
 - 2022년 3/4분기 농림어업은 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5.5% 증가함.
 - 2022년 3/4분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줄어 1.0% 감소함.
 - 2022년 3/4분기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7% 증가함.
 - 2022년 3/4분기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늘어 1.8%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0				2021p				2022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0.3	-6.3	-0.6	3.4	6.9	-9.8	8.2	0.7	1.6	-8.7	5.5(-1.4)
제조업	-0.7	-8.8	7.6	2.5	3.9	-0.4	-0.3	0.7	3.3	-0.7	-1.0(2.2)
서비스업	-2.3	-1.1	1.2	0.7	0.9	1.7	0.6	1.9	0.0	1.8	0.7(4.5)
(도소매 및 음식숙박)	-5.7	-2.7	1.4	0.0	1.0	2.1	-0.7	4.5	0.1	2.3	2.2(9.3)
(운수업)	-12.2	-11.5	3.8	-0.9	3.8	4.2	-1.7	4.4	-1.1	8.1	-0.8(10.7)
(금융 및 보험)	2.8	3.0	2.3	2.3	1.7	-1.3	3.5	1.9	0.3	-2.3	2.3(2.1)
(정보통신업)	3.4	0.0	-1.9	2.6	0.8	2.3	2.8	2.4	-2.9	4.0	1.3(4.6)
(문화 및 기타)	-13.8	-9.8	4.5	-1.6	1.4	2.9	0.2	3.2	-0.1	7.2	3.3(14.2)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22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9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 2022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843만 명으로 전기 대비 0.2%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9월 산업별로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함.
 - 2022년 9월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1만 6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2만명, 일용근로자는 11만 4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 6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9천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7,748	28,596	28,451	28,445	28,360	29,227	29,143	2.4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1.7	63.5	63.1	63.0	62.7	64.6	64.4	1.3
취업자	26,904	27,273	26,369	27,467	27,645	27,611	27,369	28,347	28,425	2.8
• 농림어업	1,445	1,458	1,253	1,537	1,572	1,472	1,310	1,630	1,661	5.7
• 광공업	4,389	4,380	4,423	4,387	4,322	4,387	4,489	4,518	4,532	4.9
(제조업)	4,376	4,368	4,410	4,375	4,310	4,376	4,476	4,507	4,525	5.0
• 건설업	2,016	2,090	1,995	2,107	2,134	2,125	2,071	2,164	2,128	-0.3
도소매·음식숙박업	5,647	5,451	5,415	5,506	5,461	5,421	5,424	5,486	5,517	1.0
실업자	1,108	1,037	1,380	1,129	807	833	990	880	718	-11.0
실업률(계절조정)	4.0	3.7	4.3	3.7	3.1	3.4	3.0	2.8	2.7	-0.4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9월 고용동향(2022.10.14.)」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9.16., 2022.10.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2.9% 증가함.
- 2022년 7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1.9%)가 증가하였지만, 내구재(Δ 0.8%), 비내구재(Δ 1.1%)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0.4% 감소하였음.
- 202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4.2%), 준내구재(2.2%), 비내구재(5.2%) 판매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 대비 4.3% 증가하였음.
- 2022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증가폭 축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0	2021p					2022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p	8월p
민 간 소 비	-4.8	3.7	1.2	3.3	0.0	1.5	-0.5	2.9	-	-
소 매 판 매	-0.2	5.9	1.7	2.2	0.8	1.1	-1.1	-1.1	-0.4	4.3
(내 구 재)1	11.1	5.5	0.9	0.4	-2.1	-0.2	-1.0	-2.1	-0.8	4.2
(준내구재)2	-12.4	12.8	2.7	7.7	2.7	2.7	-4.6	4.1	1.9	2.2
(비내구재)3	-0.5	3.7	1.8	1.4	1.6	1.1	0.5	-2.6	-1.2	5.2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1년, 2022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9.16., 2022.10.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90만 원으로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하였음.
 -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재산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12.7%, 52.2% 증가하여 경상소득은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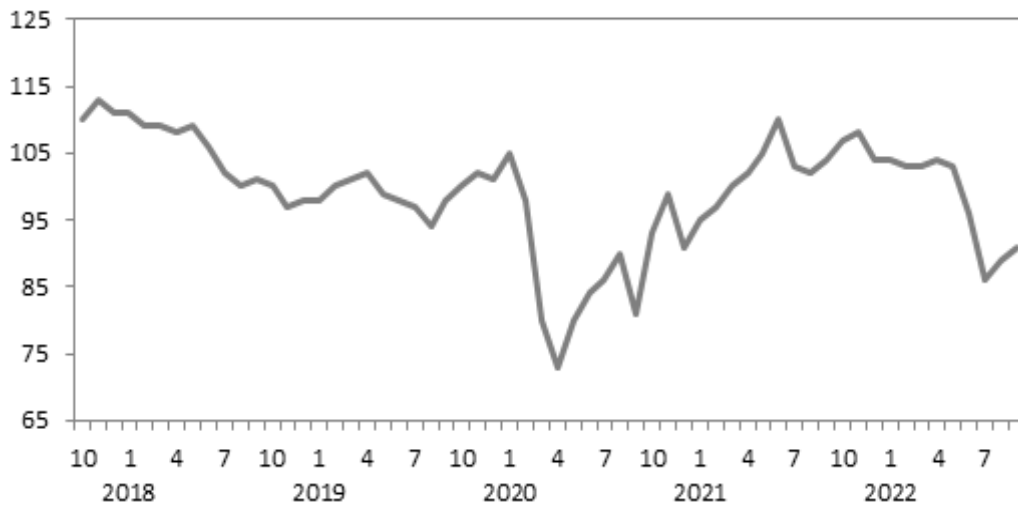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 득	3.7	4.8	1.6	1.8	-0.7	-1.4	7.6	7.0	11.1	13.4
경상소득	2.4	4.3	1.2	1.2	0.1	-1.5	7.7	6.9	11.5	13.3
(근로소득)	1.8	-5.3	-1.1	-0.5	-3.5	4.9	5.7	5.7	12.6	6.3
(사업소득)	2.2	-4.6	-1.0	-5.1	1.6	5.5	3.3	11.9	10.9	12.7
(재산소득)	22.4	-11.7	18.5	7.4	-12.7	58.1	-27.5	8.9	-6.7	-26.1
(이전소득)	4.7	80.8	17.1	25.1	17.5	-31.4	25.3	5.4	8.3	52.2
비경상소득	79.8	44.4	33.3	49.1	-30.0	6.3	-1.1	10.9	-7.8	19.2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9년 1분기부터 전채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은 1인 이상 가구로 발표되어 2018년은 전가구(2인 이상), 2019년 이후는 전가구(1인 이상) 가계소득 자료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 2022년 9월 소비심리지수⁵⁾는 91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함.
 - 4월 104 → 5월 103 → 6월 96 → 7월 86 → 8월 89 → 9월 91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와 비교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⁶⁾

- 2022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08.8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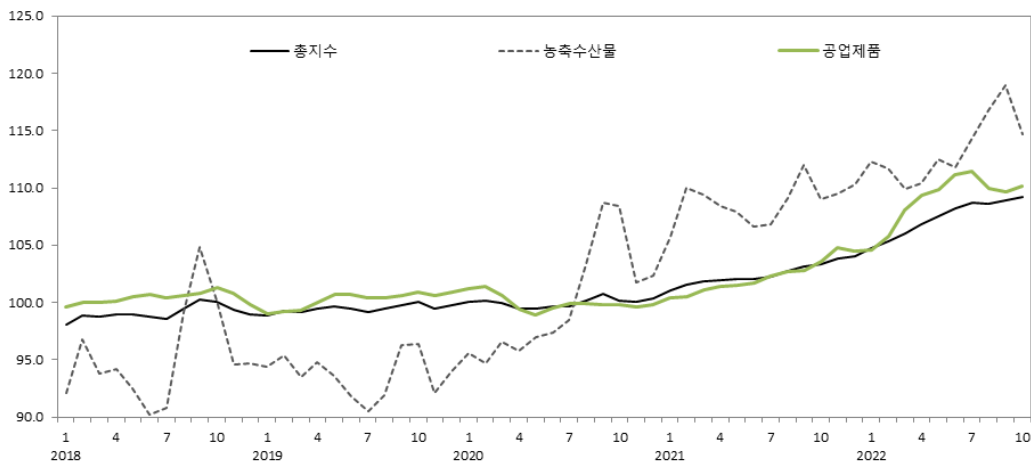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0.0 (0.5)	101.5 (1.4)	102.0 (2.5)	102.7 (2.5)	103.8 (3.5)	105.4 (3.8)	107.5 (5.4)	108.8 (5.9)
상 품	100.0 (0.9)	101.9 (1.6)	102.4 (3.3)	103.2 (3.1)	105.0 (4.4)	106.7 (4.7)	110.1 (7.6)	111.4 (7.9)
농축수산물	100.0 (6.7)	108.4 (13.3)	107.7 (11.3)	109.3 (5.6)	109.6 (5.2)	111.3 (2.7)	111.6 (3.6)	116.7 (6.8)
공업 제품	100.0 (-0.2)	100.7 (-0.4)	101.5 (2.2)	102.6 (2.8)	104.3 (4.6)	106.1 (5.4)	110.1 (8.5)	110.4 (7.5)
전기·수도·가스	100.0 (-1.4)	98.2 (-5.0)	98.2 (-4.8)	94.5 (0.3)	100.7 (1.4)	101.1 (2.9)	106.7 (8.7)	109.0 (15.3)
서 비 스	100.0 (0.3)	101.1 (1.3)	101.7 (1.8)	102.3 (2.0)	102.7 (2.8)	104.2 (3.0)	105.3 (3.5)	106.5 (4.1)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22.10.05.)」, 한국은행 「2022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22.10.21.)」, 「2022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22.10.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2년 9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 4.2% 상승하였지만, 서비스의 경우 전기 대비 0.1% 하락함.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6.7%, 14.6% 상승함.
 - 집세는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함. 공공 및 개인서비스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6.4% 상승하였지만, 전기대비 각각 0.1% 하락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20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9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모든 지출목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지만, 전월 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통신, 기타 상품·서비스는 상승하였지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류·담배, 교통, 오락·문화는 하락하였음. 교육, 의류·신발은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2022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로 전년 동기 대비 6.8%, 전기 대비 4.6%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기타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3.7% 감소하였으나, 채소, 과실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1%, 8.1%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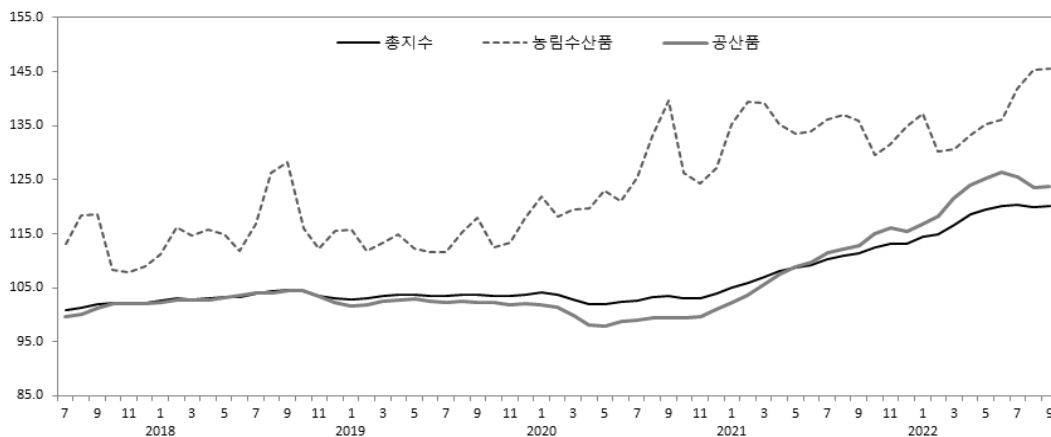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2020	2021				2022			증률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0.0	108.4	107.7	109.3	109.6	111.3	111.6	116.7	6.8	4.6
농산물	100.0	112.0	107.3	107.4	106.7	111.3	107.1	117.2	9.2	9.5
곡물	100.0	109.2	110.0	110.2	107.3	103.6	99.8	95.6	-13.3	-4.2
채소	100.0	113.8	99.5	101.0	102.8	107.2	99.4	126.4	25.1	27.1
과실	100.0	110.4	112.5	111.8	110.2	120.1	119.4	120.8	8.1	1.2
기타농산물	100.0	115.8	115.4	112.0	108.8	110.2	107.4	107.9	-3.7	0.4
축산물	100.0	105.4	111.0	116.5	117.8	115.2	121.9	121.7	4.5	-0.2
수산물	100.0	102.2	101.8	100.2	101.6	102.7	104.4	103.9	3.7	-0.5

자료: 통계청

- 202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로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하였음.
 - 2022년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축산물이 내렸으나, 농산물, 수산물에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 2022년 9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 및 유제품 등이 내렸으나, 제1차 금속제품, 음식료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 2022년 9월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는 운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2% 하락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기 대비 0.7%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9월 수출물가지수는 131.7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기 대비 3.2%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기 대비 1.7% 하락함.
- 2022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42.9로 전기 대비 4.5%,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함.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45.9로 전기 대비 3.2% 상승함.
- 2022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29.5로 전기 대비 0.7%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4.7% 상승함.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31.7로 전기 대비 3.2%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94.7 (-5.2)	98.3 (1.5)	106.1 (12.3)	113.0 (18.9)	115.7 (25.0)	119.9 (22.0)	130.5 (23.0)	129.6 (14.7)	127.6 (13.0)	131.7 (15.2)
농림수산물	114.1 (-2.4)	108.7 (-6.8)	112.9 (-1.9)	127.3 (11.2)	127.0 (15.3)	130.5 (20.0)	136.7 (21.1)	142.9 (12.2)	141.3 (11.5)	145.9 (14.2)
농 산 물	114.2 (-1.5)	105.5 (-8.6)	101.9 (-13.8)	108.4 (-5.7)	87.7 (-19.0)	93.0 (-11.9)	112.0 (9.9)	113.1 (4.3)	109.1 (5.5)	109.1 (6.1)
공 산 품	94.7 (-5.2)	98.3 (1.6)	106.1 (12.3)	112.9 (18.9)	115.7 (25.0)	119.9 (22.0)	130.4 (23.0)	129.5 (14.7)	127.6 (13.0)	131.7 (15.2)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2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51.5로 전기 대비 0.6%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4.2% 상승함.
- 2022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154.4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광산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24.1% 각각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기 대비 1.4% 하락함.
- 2022년 3/4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44.5로 전기 대비 변동 없지만, 전년 동기 대비 19.5% 상승하였으며,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48.7로 전기 대비 4.4% 상승함.
- 2022년 3/4분기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30.7로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4.1% 각각 상승하였으며, 9월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33.3으로 전기 대비 3.2%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99.9 (-8.7)	105.9 (0.8)	112.8 (14.6)	122.0 (22.8)	129.2 (33.6)	140.2 (32.4)	152.4 (35.2)	151.5 (24.2)	149.5 (22.9)	154.4 (24.1)
농림수산물	102.7 (0.6)	106.1 (2.1)	114.0 (9.8)	120.9 (18.3)	125.4 (24.4)	132.5 (24.8)	144.5 (26.7)	144.5 (19.5)	142.5 (17.5)	148.7 (20.4)
농 산 물	100.2 (1.6)	110.4 (11.4)	118.1 (19.5)	128.5 (28.2)	137.5 (34.0)	149.4 (35.4)	163.1 (38.0)	160.9 (25.2)	159.3 (23.3)	166.8 (25.9)
공 산 품	101.8 (-2.5)	104.2 (0.4)	108.5 (6.1)	114.6 (12.1)	118.9 (20.1)	124.7 (19.7)	130.5 (20.2)	130.7 (14.1)	129.1 (12.6)	133.3 (14.9)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2년 8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기 대비 1.5% 증가)함.
- 2022년 8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기 대비 0.7%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금전신탁 등이 증가하였지만,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등이 감소함.
- 2022년 8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기 대비 0.4%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1						202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1	20.5	20.0	19.7	18.0	17.6	15.6	14.3	11.6	11.3	9.5	8.7	7.8	5.3	2.5
M22	11.4	12.5	12.8	12.4	12.9	13.2	12.7	11.8	10.8	9.4	9.3	8.8	8.0	7.2
Lf3	9.9	10.4	10.6	10.2	10.6	10.7	10.6	9.9	9.1	8.0	8.1	7.7	7.0	6.5
본원통화 ⁴⁾	15.8	15.2	14.7	16.1	14.9	15.0	15.6	11.9	11.5	14.0	12.4	9.8	13.7	9.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2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2.10.18.)」과 「2022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2022.10.13.)」, 「2022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2.10.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2년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강화,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코스피는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가세하여 큰 폭으로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1			2022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고채(3년)	1.8	2.0	1.8	2.1	2.3	2.4	2.9	3.0	3.5	3.2	3.2	3.9	4.2
회사채1	2.3	2.5	2.4	2.6	2.9	3.0	3.6	3.8	4.2	4.1	4.2	4.9	5.4
CD유통수익률(91일)	1.1	1.2	1.3	1.4	1.5	1.5	1.6	1.8	2.0	2.4	2.8	3.0	3.7
콜금리2	0.7	0.8	1.0	1.2	1.2	1.2	1.3	1.5	1.7	2.0	2.3	2.5	3.0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2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6.2% 상승한 1,338원임.
 - 2022년 9월 원/달러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우리나라 8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2022년 3/4분기 원/100엔 환율은 전기 대비 0.4% 하락한 968원, 원/유로는 전기 대비 0.4% 상승한 1,348원, 원/위안은 전기 대비 2.6% 상승한 195원/위안으로 나타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180	1,144	1,114	1,121	1,157	1,183	1,205	1,260	1,338	1,318	1,392
원/100엔	1,105	1,041	1,051	1,024	1,051	1,040	1,036	972	968	975	973
원/유로	1,346	1,353	1,343	1,351	1,365	1,353	1,352	1,342	1,348	1,335	1,377
원/위안	171	177	172	174	179	185	190	190	195	194	198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생산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높은 물가수준 및 주택시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9월 대외수요 위축, 쓰촨성 전력난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생산·소비·투자 등 여타 실물지표는 소폭 개선되었음.
- 일본 경제는 생산·소비 등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엔저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
- 유로존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생산자·소비자 심리 악화가 지속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8	5.9	6.3	7.0	2.7	7.0	-1.6	-0.6	-	-
	산업생산(전기비)	-7.0	4.9	0.8	1.6	0.9	1.2	1.2	1.3	0.5	-0.2
	소매판매(전기비)	0.7	19.6	7.6	6.5	0.0	2.3	3.3	2.5	-0.4	0.3
	실업률(계절조정)	8.1	5.4	6.2	5.9	5.1	4.2	3.8	3.6	3.5	3.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4.7	1.9	4.8	5.3	6.7	8.0	8.6	8.5	8.3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2.2	8.1	18.3	7.9	4.9	4.0	4.8	0.4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8	9.6	24.5	9.0	4.9	3.9	6.5	0.6	3.8	4.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9	12.5	33.9	14.1	5.1	3.5	3.3	-4.9	2.7	5.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5	0.9	0.0	1.1	0.8	1.8	1.1	2.2	2.7	2.5
일본	실질GDP(전기비)	-4.5	1.7	-0.3	0.4	-0.4	1.0	0.1	0.9	-	-
	산업생산(전기비)	-10.3	5.6	2.5	0.3	-1.9	0.2	0.8	-2.7	0.8	2.7
	소매판매(전기비)	-3.3	1.9	-1.0	-0.8	0.4	1.5	-0.9	1.8	0.8	1.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5	-0.7	-0.2	0.5	0.9	2.4	2.6	3.0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6.1	5.2	-0.1	2.0	2.2	0.5	0.7	0.8	-	-
	산업생산(전기비)	-7.7	8.0	1.3	-0.3	-0.6	0.0	0.7	0.2	-2.3	1.5
	소매판매(전기비)	-0.8	5.0	-1.5	4.1	1.1	0.4	-0.4	-0.4	0.3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1.1	1.8	2.8	4.6	6.1	8.0	8.9	9.3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9.16., 2022.10.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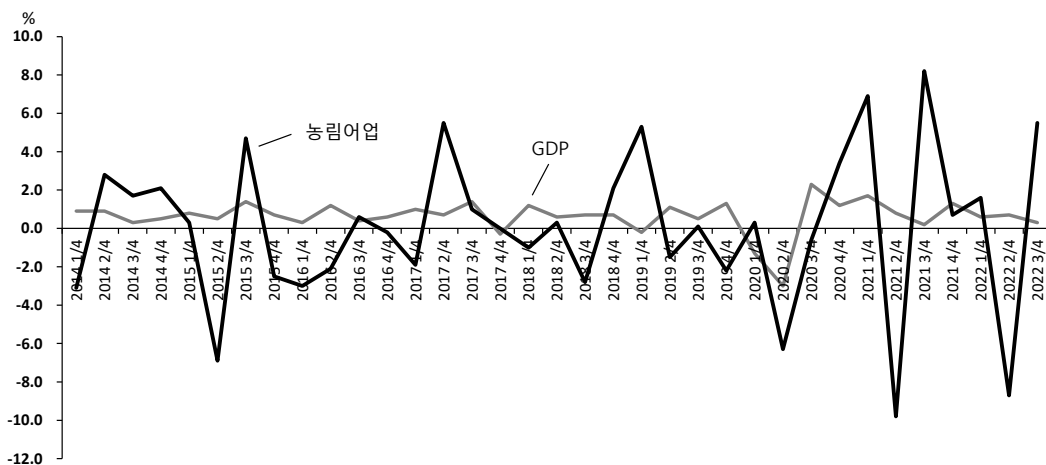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2년 3/4분기 8조 1,3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5.5% 증가함.
 -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93조 3,2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전기 대비 0.3%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0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2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7.5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청과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곡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7.0	128.7	130.0	126.2	123.6	127.5	1.0	3.2
곡물	200.1	127.5	138.1	141.4	127.9	120.7	113.2	-11.5	-6.2
-미곡	146.0	129.0	139.0	139.6	138.1	112.4	108.2	-21.7	-3.7
-맥류	8.7	104.7	87.8	87.2	79.4	81.3	91.7	15.5	12.8
-두류/잡곡	27.5	137.1	164.0	197.1	110.0	150.4	142.6	29.6	-5.2
-서류	17.9	110.9	115.8	96.8	95.9	161.4	120.0	25.1	-25.7
청과물	314.0	133.6	141.0	140.3	140.6	136.0	160.2	13.9	17.8
-채소	196.1	118.6	122.5	101.0	130.8	120.0	156.3	19.5	30.3
-과수	117.9	158.5	171.9	205.6	156.9	162.6	166.6	6.2	2.5
축산물	378.3	101.8	116.8	119.8	120.9	115.0	110.0	-9.0	-4.3
-가축	240.7	105.5	116.3	120.2	120.6	114.0	108.1	-10.4	-5.2
-기타	137.6	95.3	117.6	119.1	121.4	116.9	113.4	-6.6	-3.0
기타농산물	107.6	102.2	117.5	114.4	99.9	123.2	120.3	20.4	-2.4
-특용작물	64.7	97.5	115.4	113.0	103.9	120.2	116.3	11.9	-3.2
-화훼	39.3	109.6	122.4	118.1	93.2	129.0	127.3	36.6	-1.3
-부산물	3.6	106.0	102.0	100.8	100.8	113.2	113.2	12.3	0.0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전기 대비 6.2% 하락함.
 - 미곡과, 멥쌀, 찰쌀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7%, 23.0%, 11.8% 하락함.
 - 쌀보리(조곡), 맥주보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지만, 보리쌀(정곡)의 경우 47.0% 상승하여 맥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함.
 - 두류/잡곡의 경우 검정콩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9% 하락하였지만, 옥수수, 팥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39.9%, 11.6%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함.
 - 서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이는 감자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1% 상승하였기 때문임.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6.3으로 조미채소류를 제외한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9.5%, 전기 대비 30.3% 상승함.
 -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경우 품목들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9%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8% 상승함.
 - 무, 당근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0%, 94.8% 상승하여,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1.3% 상승함.
 -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양파, 파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8%, 55.6% 상승하였지만, 건고추, 생강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17.8%, 25.5%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 전반적인 과채류 품목들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하여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2% 상승하였고, 특히 호박, 가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74.6%, 55.4% 상승하여 과채류 품목들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6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전기 대비 2.5% 상승함.
 - 사과, 포도, 단감, 자두, 매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2%, 18.2%, 26.1%, 4.7%, 13.7% 상승하였고, 배, 복숭아, 감귤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6.8%, 4.1%, 2.2% 하락함.
 - 전기 대비 사과, 배, 감귤, 매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7.2%, 1.6%, 96.1%, 8.8% 상승하였고,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1.1%, 8.2%, 3.7%, 2.7%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전기 대비 4.3% 하락함.
 - 가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하락하였으며, 한우(암, 수), 육우, 한우 송아지(암, 수), 육우 송아지, 젖소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0%, 18.9%, 11.3%, 58.6%, 47.8%, 61.9%, 39.2% 하락함.
 - 기타축산물의 경우 벌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하였지만, 계란, 우유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13.2%, 0.3% 하락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2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7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전기 대비 2.3%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48.5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전기 대비 3.7% 상승함.
 -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 117.9%, 7.9%, 22.8%, 20.6% 상승함.

- 노무비, 경비 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58.0, 13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25.2%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하락한 110.6임.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2년 3/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47.5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전기 대비 3.4%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6.1	111.1	110.0	112.5	124.8	127.7	13.5	2.3
가계용품	484.8	106.1	108.9	108.4	109.2	113.7	115.3	5.6	1.4
재료비	250.6	101.8	110.0	107.0	113.7	143.2	148.5	30.6	3.7
-종자종묘	27.6	115.9	116.1	115.7	117.8	127.8	126.6	7.5	-0.9
-비료비	39.1	77.9	83.7	78.6	88.8	196.0	193.5	117.9	-1.3
-농약비	29.3	118.9	120.8	120.8	120.8	130.4	130.4	7.9	0.0
-사료비	136.0	102.1	113.6	111.0	117.3	133.8	144.1	22.8	7.7
-영농자재비	18.7	102.6	112.8	102.3	122.4	144.0	147.6	20.6	2.5
노무비	45.0	124.2	135.3	134.3	138.3	152.3	158.0	14.2	3.7
경비	129.0	103.3	107.5	106.4	108.3	130.4	135.6	25.2	4.0
-영농광열비	32.6	87.1	108.6	104.1	111.3	193.0	200.7	80.3	4.0
-임차료	40.5	112.4	114.5	114.4	114.8	116.4	117.9	2.7	1.3
-농작업위탁비	42.5	108.5	103.4	103.6	103.6	103.3	103.3	-0.3	0.0
-판매자재비	13.3	98.0	96.5	96.5	96.5	106.1	132.8	37.6	25.2
자산구입비	90.6	113.2	118.6	119.4	120.3	111.9	110.6	-8.1	-1.2
-기계구입	58.9	104.3	104.5	104.0	104.8	104.8	105.6	0.8	0.8
-가축구입비	31.7	129.6	144.9	148.1	149.0	125.2	120.0	-19.5	-4.2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2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8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지만, 전기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5%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30.0	126.2	123.6	127.5	1.0	3.2
농가구입가격(B)	110.0	112.5	124.8	127.7	13.5	2.3
농업투입재가격(C)	109.4	115.0	142.6	147.5	28.3	3.4
농가교역조건(A/B×100)	118.2	112.2	99.0	99.8	-11.0	0.8
농가경영조건(A/C×100)	118.8	109.7	86.7	86.4	-21.2	-0.3

자료: 통계청 및 원고 저자 작성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6만 1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전기 대비 1.9% 증가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5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전기 대비 0.3%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99만 4천 명, 여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66만 7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189만 3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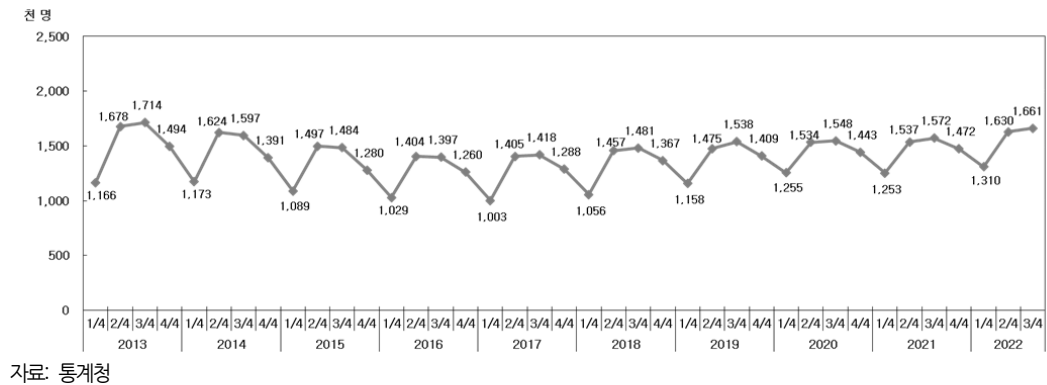
구 분		2021	2022		증감률(%)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7,645	28,347	28,425	2.8	0.3
	(계절조정)	(27,406)	(28,152)	(28,179)	2.8	0.1
	농림어업	1,572	1,630	1,661	5.7	1.9
	(계절조정)	(1,438)	(1,515)	(1,520)	5.7	0.3
	남성	949	973	994	4.7	2.2
	여성	623	658	667	7.1	1.4
	농가	1,884	1,840	1,893	0.5	2.9
	농가남성	1,061	1,027	1,065	0.4	3.7
	농가여성	823	813	828	0.6	1.8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 3/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추세를 따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95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함.
 - 곡류와 채소류 수출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1%, 37.9% 감소하였지만, 과일류 수출량은 6.4%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포유육류, 낙농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12.0%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 수출량은 97.6% 증가하여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함.
 -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전기 대비 24.0% 감소함.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이는 곡류, 과일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4%, 3.0%, 증가하였으나 채소류 수출액은 19.6% 감소했기 때문임.
 - 축산물 수출액의 경우 포유육류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 낙농품은 각각 98.5%, 0.8%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함.
- 2022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6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전월 대비 5.9%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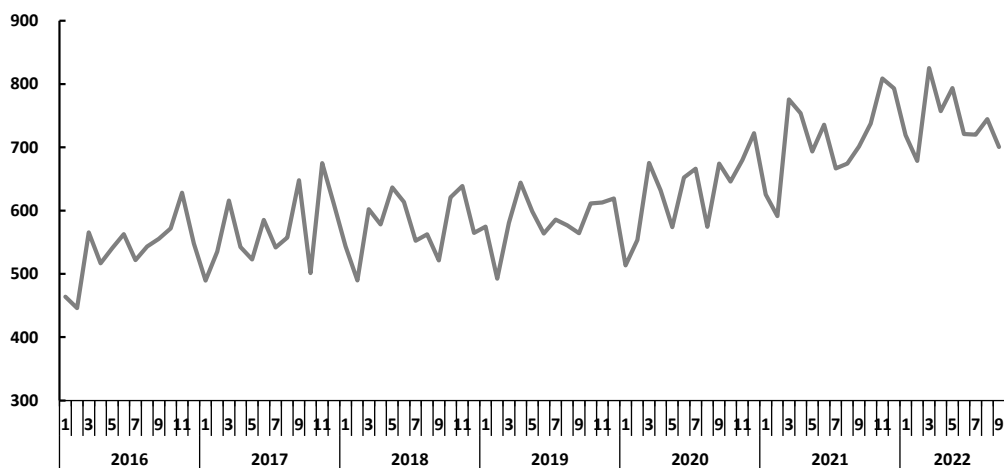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26	2,184	966	2,043	1,064	2,272	959	2,166	-0.7	6.0
농산물	883	1,920	778	1,788	850	1,984	782	1,877	0.5	5.0
-곡류	61	24	11	9	67	22	10	10	-8.1	19.4
-과실류	29	70	30	94	27	67	32	97	6.4	3.0
-채소류	39	119	38	102	37	114	24	82	-37.9	-19.6
축산물	48	138	47	137	52	153	54	155	14.4	13.6
-포유육류	2	8	2	10	2	8	2	9	-12.3	-8.9
-가금육류	10	16	10	16	15	24	20	31	97.6	98.5
-낙농품	9	40	9	38	8	42	8	39	-12.0	0.8
임산물	196	126	140	118	162	136	123	134	-12.4	13.0
수 산 물	178	676	210	710	273	922	220	735	4.8	3.5
전 체	1,304	2,859	1,176	2,753	1,337	3,194	1,179	2,901	0.3	5.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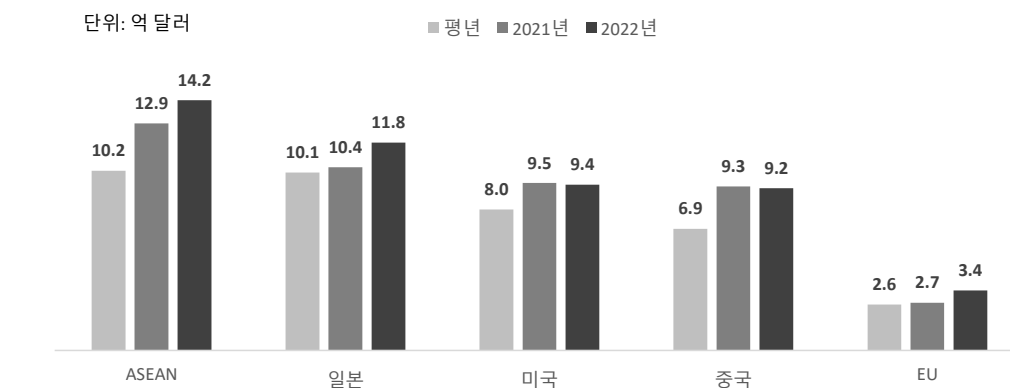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2년 1~9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6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5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일본, EU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그중 對EU 수출액이 23.8%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8.6으로 전분기 대비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수출상품 제조원가(67.8)의 압박이 있고 이로 인해 수출채산성(77.3)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²⁾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83.4%), 물류비용 상승(80.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2년 3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2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2.06.27).

4.2. 수입 동향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416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22.3%, 1.8% 증가함.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30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4%, 32.1%, 2.0%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액은 옥수수, 밀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함.
 - 키위, 버찌, 아보카도, 오렌지 수입액 감소로 인해 과실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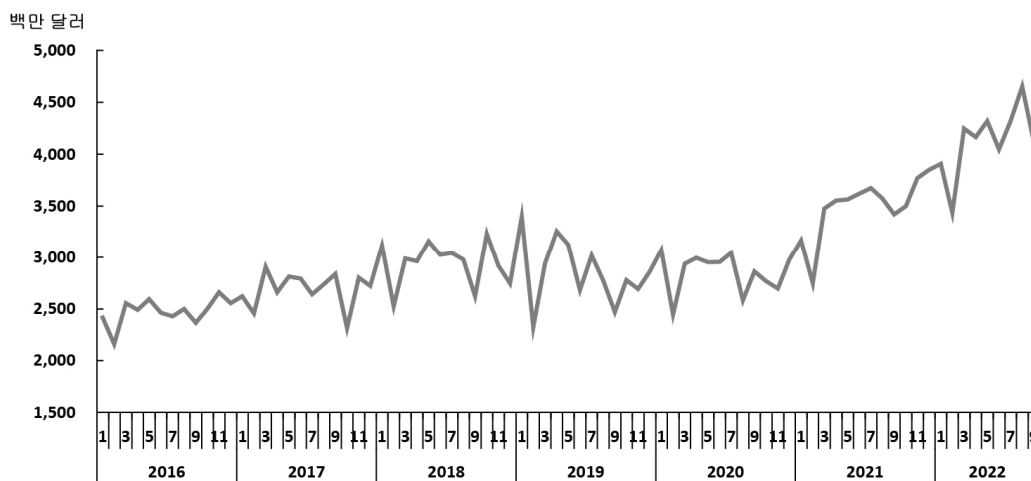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464	10,733	13,336	10,663	14,284	12,530	14,168	13,083	6.2	22.7
농 산 물	9,472	6,531	8,882	6,280	9,379	7,684	9,542	7,876	7.4	25.4
-곡류	4,369	1,267	3,965	1,306	4,168	1,607	4,280	1,839	7.9	40.8
-과실류	368	690	270	476	325	667	255	462	-5.7	-3.0
-채소류	310	284	269	256	290	300	334	319	24.4	24.6
축 산 물	472	2,217	457	2,443	501	2,753	559	3,228	22.3	32.1
-포유육류	253	1,414	245	1,535	276	1,748	318	2,032	29.7	32.4
-가금육류	45	102	44	105	55	148	78	239	75.8	127.9
-낙농품	92	332	97	350	105	433	106	455	9.8	29.8
임 산 물	4,519	1,985	3,996	1,941	4,405	2,093	4,067	1,979	1.8	2.0
수 산 물	1,275	1,452	1,539	1,404	1,425	1,791	1,668	1,662	8.4	18.4
전 체	15,739	12,185	14,874	12,067	15,709	14,321	15,837	14,745	6.5	22.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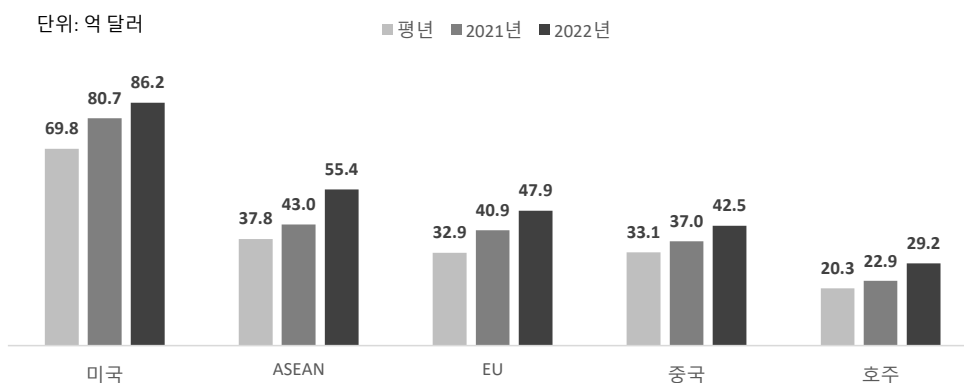
- 2022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1억 1,28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3%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11.6%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2년 3분기」.

- 2022년 1~9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370억 7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4%, 17.5% 증가함.
 - 주요 농식품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함(미국 6.9%, ASEAN 29.1%, EU 17.1%, 중국 14.9%, 호주 27.9%).
 - 그 외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호주 등 국가에서 수입액이 많이 증가함.

4.3. 순수입 동향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320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7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50만 5천 톤임.
- 2022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109억 1,7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6%, 33.2%,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년 3/4분기		2022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370	8,621	13,209	10,917	6.8	26.6
농 산 물	8,104	4,492	8,760	5,999	8.1	33.6
축 산 물	410	2,306	505	3,073	23.2	33.2
임 산 물	3,856	1,823	3,944	1,846	2.3	1.3
수 산 물	1,329	694	1,449	927	9.0	33.6
전 체	13,699	9,315	14,658	11,844	7.0	27.2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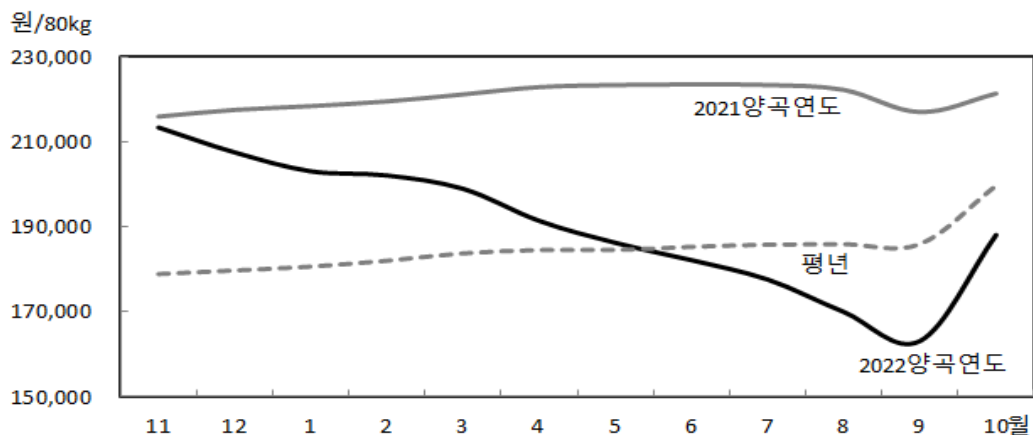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7~2021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산지 쌀 가격은 17만 195원/80kg(42,549원/20kg 기준)으로 2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23.0% 하락
 - 이는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도 쌀 판매 감소 등으로 재고 부담이 큰 업체들의 저가 출하가 늘었기 때문.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박한울 전문연구원(phu87@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산지유통업체 재고(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77.3% 증가(12만 8천 톤 ↑)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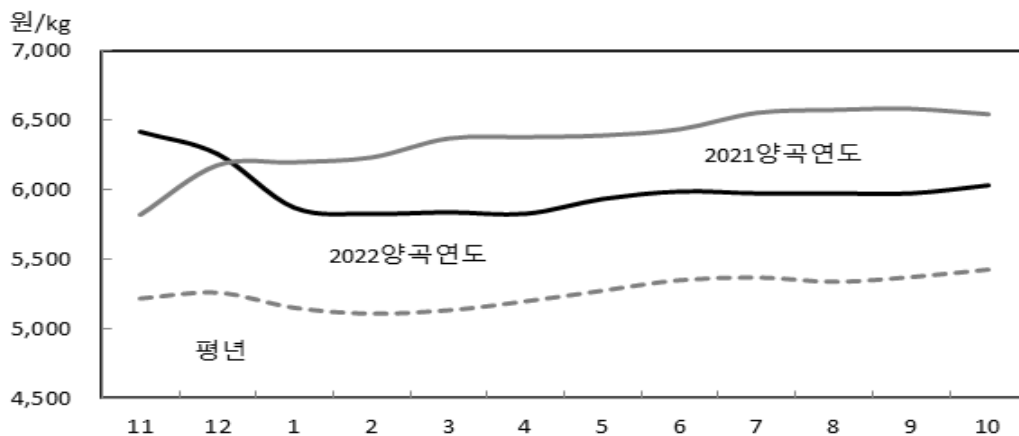
- 10월 산지 쌀 가격은 18만 8,107원/80kg(47,027원/20kg)으로 3분기 대비 10.5% 상승, 전년 대비 15.0% 하락
- 이는 정부의 수확기 수급대책 발표로 산지수급불안 심리가 크게 해소되었기 때문임. 다만, 2021년산 역계절진폭(20.5%)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
- 4분기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수확기 시장공급량 감소(생산 감소 및 정부 매입 증가)로 3분기 대비 상승 전망

* 정부 수확기 매입물량은 총 90만 톤(구곡 8만 톤 포함)으로 역대 최대 물량 시장격리

* 통계청 예상생산량(전년비 2.0% ↓) : 재배면적(전년비 0.7% ↓), 단수(전년비 1.3% ↓)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7~2021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975원/(백태 상품 kg)으로 2분기와 비슷, 전년

동기 대비 9.1% 하락

– 이는 2021년산 생산증가로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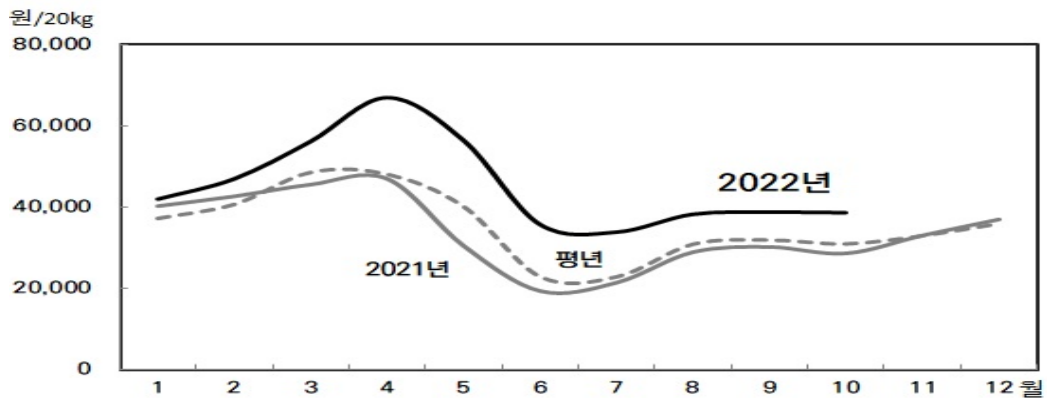
– 10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6,033원/(백태 상품 kg)으로 3분기와 비슷하나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

– 4분기 가격은 작황부진에도 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것으로 예상되어 3분기와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생산량 전망(전년比 7.4~10.3% ↑) : 재배면적(전년比 17.5% ↑), 단수(전년比 5.9~8.4% ↓)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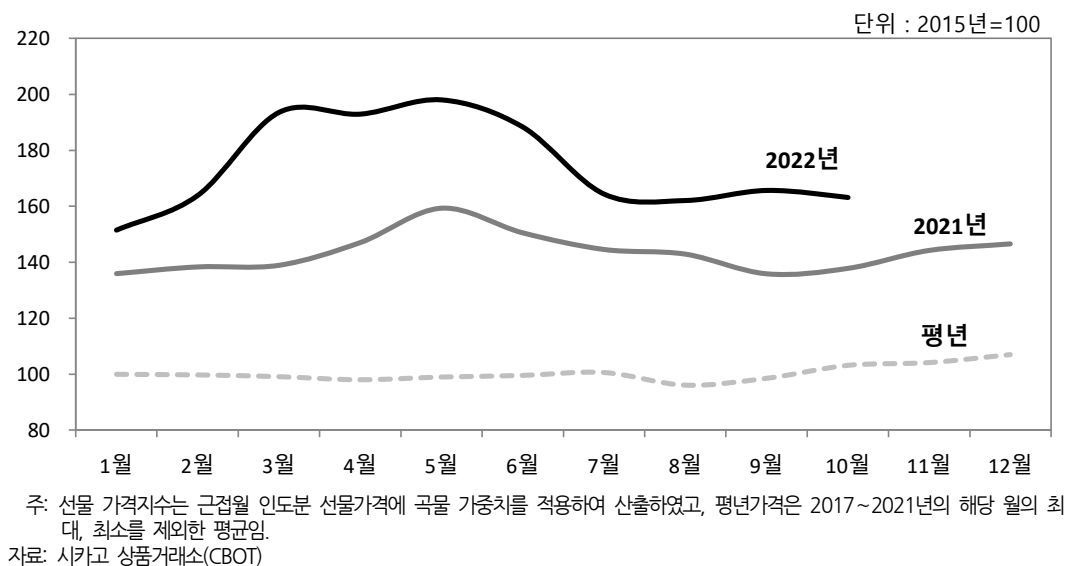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6,983원/20kg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6.8%, 29.8% 상승

- 이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출하물량이 줄었기 때문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 봄감자 출하가 줄면서 3분기 대비 4.5% 상승
 - 4분기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도 저장 봄감자 출하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높겠으나, 고랭지 및 가을감자 출하 증가 등으로 상승폭 제한 예상

1.4. 국제곡물²⁾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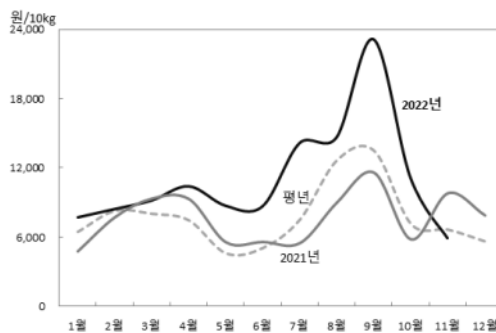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이마숙(lms1214@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강윤경(kangy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2년 3/4분기 동향
 - 2022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15.0% 하락한 164.3임.
 - 흑해지역 곡물 수출 재개, 국제 원유 가격 전 분기 대비 하락,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함.
- 2022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세계 경기 침체, 달러화 강세 및 국제 유가 하락 전망 등으로 2022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 하락한 163.0으로 전망됨.
 - 흑해지역 곡물 수출 계약 연장 불확실성, 라니냐로 인한 곡물 주산지 이상 기상 발생 등은 하락폭 제한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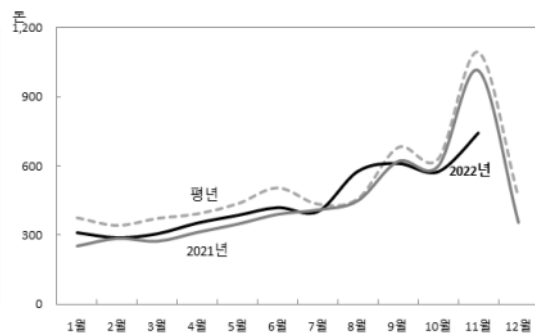
2. 엽근채소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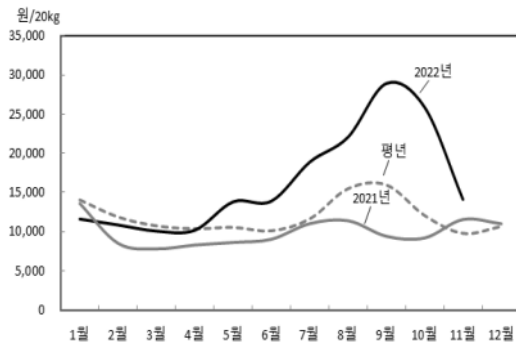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17,31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8.9%, 54.0% 상승)
 - 여름배추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7월) 14,160원/10kg, (8월) 14,650원, (9월) 23,140원
 - * 3분기 가격: (2022년) 17,310원/10kg, (2021년) 8,710원, (평년) 11,240원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가을배추 생산량 126만 7천 톤(전년 대비 10.4% 증가, 평년 대비 1.3% 감소)
 - * 재배면적 13,617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 1.3% 증가)
 - * 단수 9,302kg/10a (전년 대비 8.2% 증가, 평년 대비 2.5% 감소)
 - * 병해(시들음병, 무름병) 확산되어 작황 매우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양호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영구(ygpark@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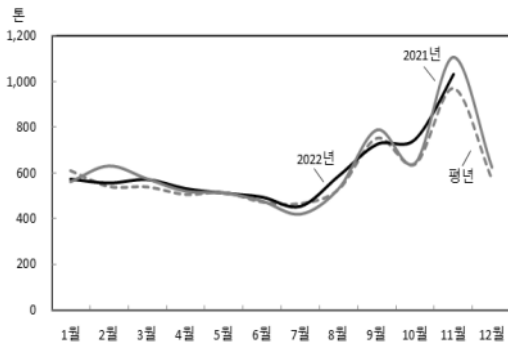
- * 강원·경기·영남 일부 지역 뿌리혹병, 바이러스 등 병해 발생으로 작황 평년 대비 다소 부진하나, 11월 본격 출하될 호남지역 작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 4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대비 9.5% 증가, 평년 대비 0.9% 감소
- 4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7,850원/20kg) 및 평년(6,500원) 대비 상승
- 2022년산 겨울배추 생산 전망
 - 겨울배추 생산량 26만 6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1%, 12.2% 감소)
 - * 재배면적 3,593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12.2% 감소)
 - * 단수 7,417kg/10a (전년 대비 2.6% 감소, 평년 수준)
 - * 가을배추 출하 마무리되는 12월 중·하순 출하 시작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23,24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0.4%, 61.9% 상승)
 - 여름(고랭지)무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하여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7월) 18,840원/20kg, (8월) 22,020원, (9월) 28,850원

* 3분기 가격: (2022년) 23,240원/20kg, (2021년) 10,550원, (평년) 14,350원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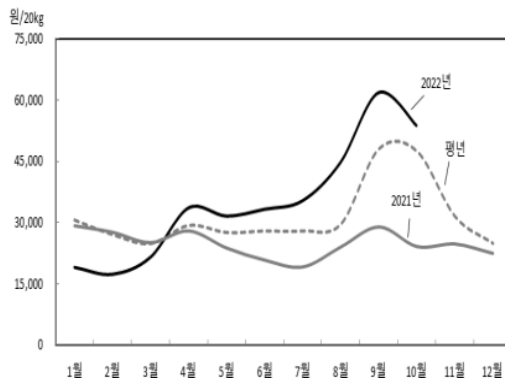
- 2022년 가을무 생산량 38만 5천 톤(전년 수준, 평년 대비 1.8% 감소)
 - * 재배면적 4,973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9%, 2.1% 증가)
 - * 단수 7,736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 3.8% 감소)
 - * 경기·충청·호남 일부 지역 열근, 공동 등 생리장해 발생으로 작황 평년 대비 다소 부진
- 4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0%, 5.6% 감소
- 4분기 무 도매가격 전년(10,520원/20kg) 및 평년(10,790원) 대비 상승

• 2022년산 겨울무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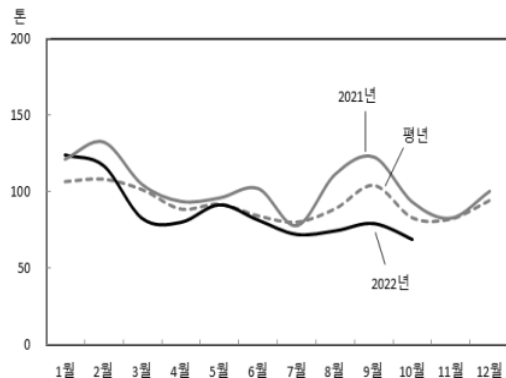
- 겨울무 생산량 35만 9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4%, 8.1% 감소)
 - * 재배면적 5,611ha (전년 및 평년 대비 4.7%, 8.9% 감소)
 - * 단수 6,407kg/10a (전년 대비 3.8% 감소, 평년 대비 0.9% 증가)
 - * 가뭄으로 인한 생육지연 발생, 12월부터 본격 출하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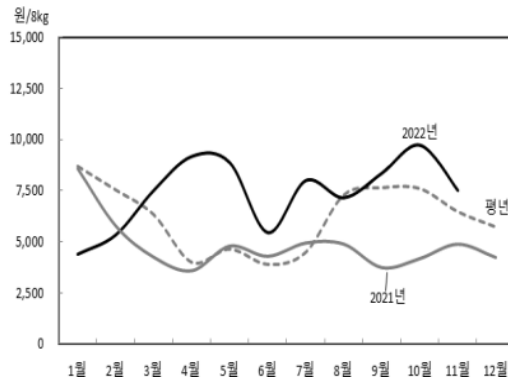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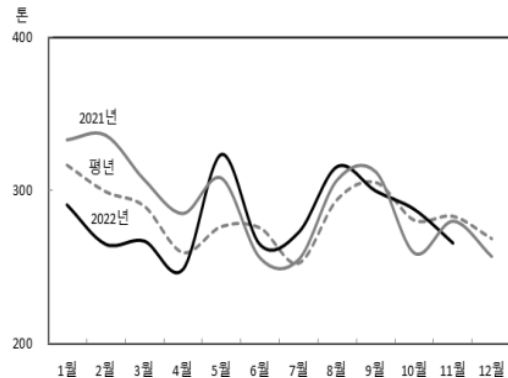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47,36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7.7%, 34.4% 상승)
 - 저장봄 및 여름(고랭지)당근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7월) 35,380원/20kg, (8월) 44,790원, (9월) 61,910원
 - * 3분기 가격: (2022년) 47,360원/20kg, (2021년) 23,960원, (평년) 35,230원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가을당근 생산량 5천 8백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0%, 17.1% 감소)
 - * 재배면적 164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21.2% 감소)
 - * 단수 3,564kg/10a (전년 대비 3.0% 감소, 평년 대비 5.2% 증가)
 - * 10월 적절한 기상으로 충청지역(시설) 작황 평년 대비 양호, 영남(노지)은 7월 고온, 8~9월 잦은 강우, 집중호우로 부진
 - 4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2%, 23.5% 감소
 - 4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23,700원/20kg) 및 평년(34,640원) 대비 상승
- 2022년산 겨울당근 생산 전망
 - 겨울당근 생산량 2만 8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 * 재배면적 81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 * 단수 3,397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 * 7~8월 고온, 9월 태풍 피해로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 평년(11월 중순) 대비 늦은 12월 중순 본격 출하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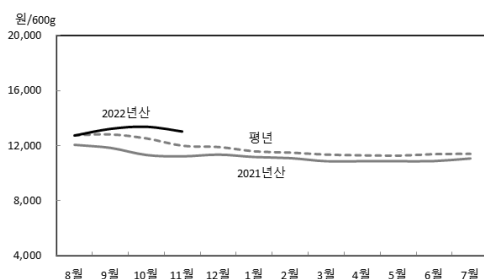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7,82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2.9%, 21.1% 상승)
 - 여름(고랭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7월) 7,990원/8kg, (8월) 7,140원, (9월) 9,720원
 - * 3분기 가격: (2022년) 7,820원/8kg, (2021년) 4,530원, (평년) 6,460원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가을양배추 생산량 2만 9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7%, 4.4% 감소)
 - * 재배면적 674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9%, 0.3% 감소)
 - * 단수 4,31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1%, 4.0% 감소)
 - * 충청지역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 호남지역은 조생종 작황 부진, 중생종은 양호
 - 4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2%, 4.1% 감소
 - 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4,440원/8kg) 및 평년(6,590원) 대비 상승

-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 전망
 - －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16만 3천 톤 (전년 대비 1.2% 감소, 평년 대비 6.9% 증가)
 - * 재배면적 2,90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 0.9% 감소)
 - * 단수 5,610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 7.9% 증가)
 - * 9월 상순 태풍 피해로 재배면적 감소, 평년과 비슷한 12월 중순 출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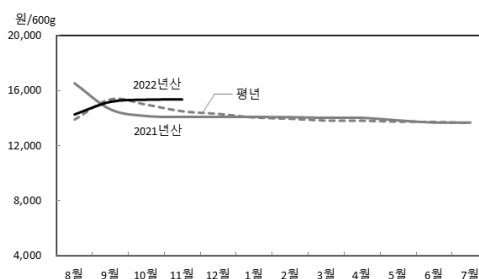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⁴⁾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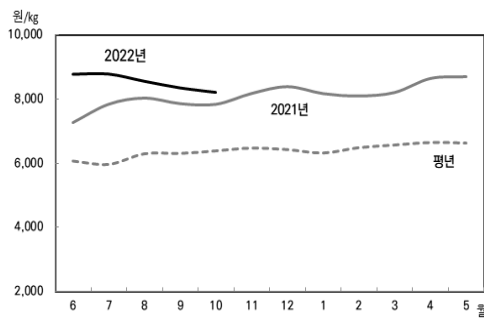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8~9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 2% 상승
 - * 건고추 도매가격: (금년) 12,970 (전년) 11,920 (평년) 12,780
 - * 월별 도매가격: (7월) 11,060원/600g, (8월) 12,750원/600g, (9월) 13,200원/600g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 후기(9~10월) 고추 생산량 감소로 3분기 대비 3% 상승한 13,350원
 - 4분기 건고추 가격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2022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 대비 22% 감소한 6만 3천 톤 전망
 - 2022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2021년산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만 9,770ha(통계청)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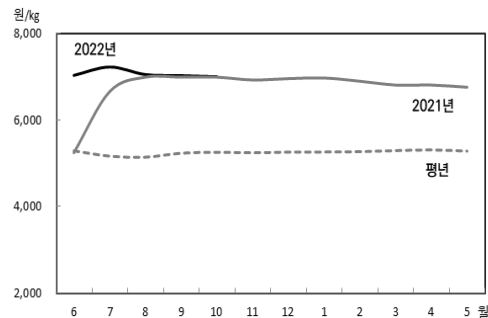
- 단수는 정식 초기 가뭄 및 여름철 기상 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211kg/10a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2%, 38.3% 상승
 -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8,556원/kg, (전년) 7,911원/kg, (평년) 6,186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8,779원/kg, (8월) 8,550원/kg, (9월) 8,340원/kg
 -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수급대책 시행과 민간 수입량 증가로 월별 도매가격은 하락 추세
- 2022년산 마늘 재고 동향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22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평년 동기 대비 13.1% 적은 7만 2천 톤 내외 추정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90,781	15,654	72,060
2021	96,419	19,185	72,908
평년	107,000	20,000	82,911
전년 대비	-5.8	-18.4	-1.2
평년 대비	-15.2	-21.7	-13.1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산 4.1%, 2021년산 5.6%, 평년 4.7%)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10. 24. 기준, '22년산 약 7,100톤)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은 냉장협회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깐마늘 가격은 전년(7,839원) 대비 4.6% 높은 8,198원/kg
 - 11월 마늘 가격은 재고량 소폭 감소하나, 정부 비축물량 시장 방출과 민간 수입 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전월 대비 하락 전망
-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2.3% 증가한 24,224ha 추정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과 비슷, 난지형은 2.8% 증가
(난지형 중 대서종 4.9% 증가, 남도종 0.5% 감소)

2023년산 마늘 추정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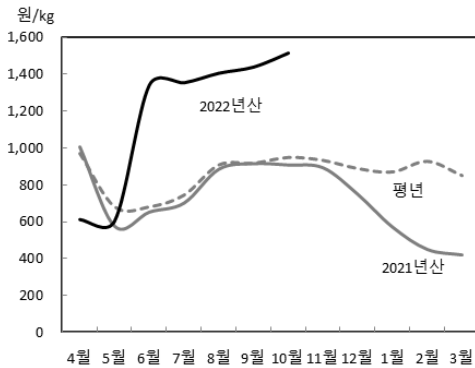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3	4,633	19,591	24,224
2022	4,628	19,058	23,686
평년	5,196	20,779	25,975
전년 대비	0.1	2.8	2.3
평년 대비	-10.8	-5.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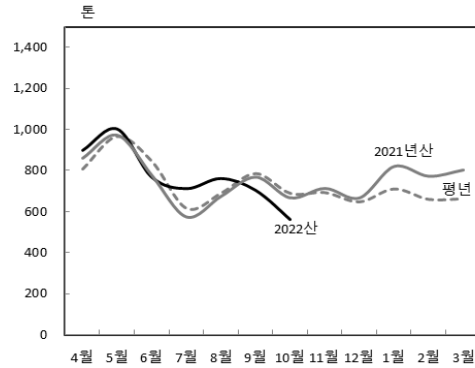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년~2022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2.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 3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감소로 전년 대비 68.3% 높은 상품 kg당 1,402원
 - ＊ 양파 도매가격: (금년) 1,402원/kg, (전년) 833원/kg, (평년) 855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1,356원/kg, (8월) 1,408원/kg, (9월) 1,441원/kg
- 2022년산 양파 저장 동향
 - － 2022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14.5% 적은 61만 5천 톤 내외로 추정
 - － 10월 말 기준 누적출고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6만 7천 톤 내외로 추정
 - ＊ 저장업체 출하조절로 10월 출고량 전년보다 14% 적은 수준
 - － 부패율을 감안한 10월 말 기준 재고량은 40만 2천 톤으로 전년보다 19.0% 적은 것으로 추정

2022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10월 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614,554	167,490	402,094
2021	718,793	169,585	496,554
평년	685,470	152,416	477,489
전년 대비	-14.5	-1.2	-19.0
평년 대비	-10.3	9.9	-15.8

주 1. 2022년산은 정부수매물량이 포함된 수치임.

2.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 10.1%, 2021년산 9.6%, 평년 10.4%)을 적용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517원으로 전년(907원) 대비 크게 상승
 - 1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저장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고, 전월과 비슷할 전망
- 2023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22년 대비 감소
 - 2023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7,043ha 추정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6% 감소, 중만생종은 3.0% 감소

2023년산 양파 추정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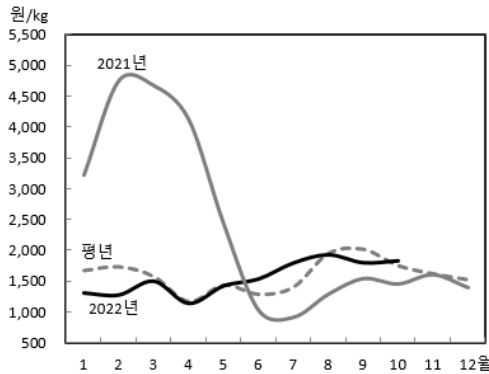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3	2,928	14,115	17,043
2022	2,975	14,546	17,521
평년	2,923	16,588	19,511
전년 대비	-1.6	-3.0	-2.7
평년 대비	0.2	-14.9	-12.6

주 1. 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2022년산 조생종 면적은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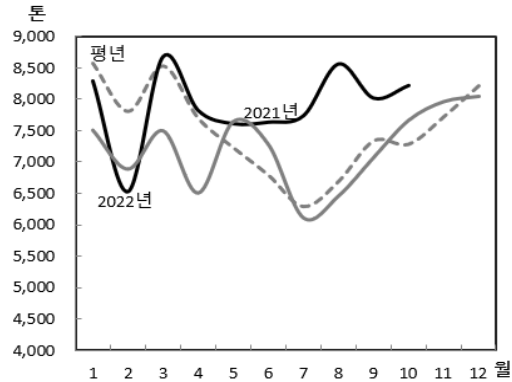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반입량 동향



- 2022년 3분기 동향

- 대파 3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848원(중품 1,545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8.2%, 3.3% 상승

* 대파 도매가격: (금년) 1,848원/kg, (전년) 1,247원/kg, (평년) 1,789원/kg

* 월별 도매가격: (7월) 1,802원/kg, (8월) 1,935원/kg, (9월) 1,806원/kg

- 3분기 가격은 주산지인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의 생육기 가뭄 영향과 금년 여름 폭우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상승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대파 출하량 감소로 전년(1,454원)보다 높은 1,837원

-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2%, 5.3% 감소

- 4분기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금년 태풍 피해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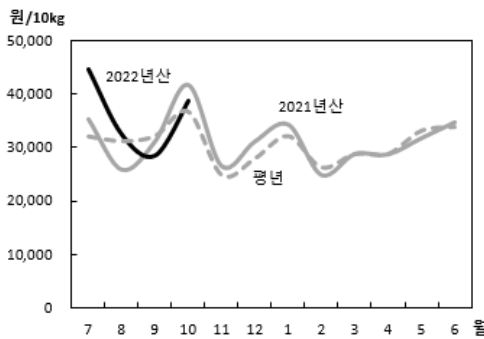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대비	-6.2	-5.6	-0.3	-14.5	-6.2
평년 대비	-3.8	-10.7	8.4	7.3	-5.3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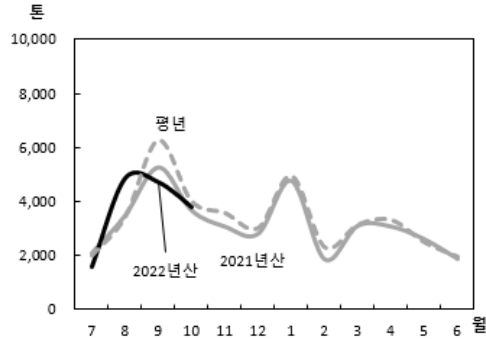
4. 과일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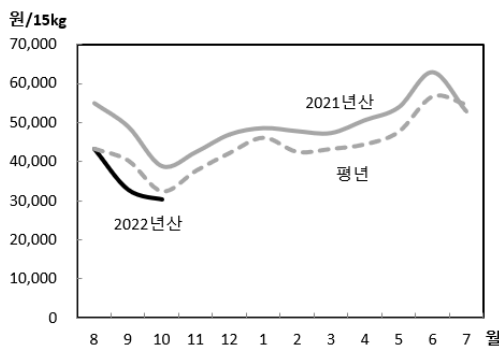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2022년산 7~8월 쓰가루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26% 상승한 38,400원/10kg이었음.
 - 9월 홍로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추석 성수기 이후 소비 부진으로 전년 대비 8% 하락한 28,400원이었음.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후지 조기 출하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 하락한 38,600원/10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후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각각 3%,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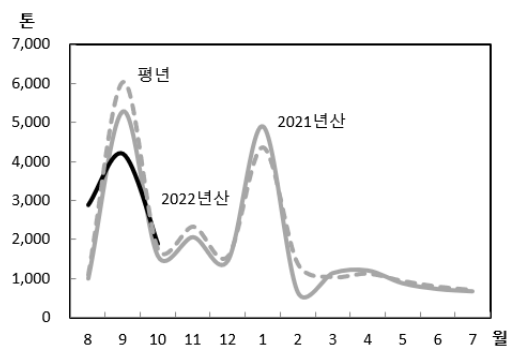
- 2022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후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2% 증가한 52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 후지 생산량은 해거리로 착과수가 감소하였으나, 작황 호조로 대과 비중이 높아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금년에는 저온피해가 미미하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상품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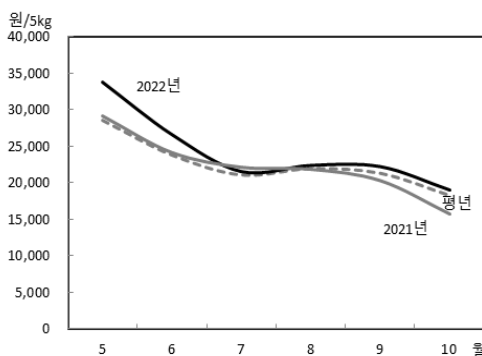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전년 대비 15%)로 전년 대비 32% 하락한 43,000원/15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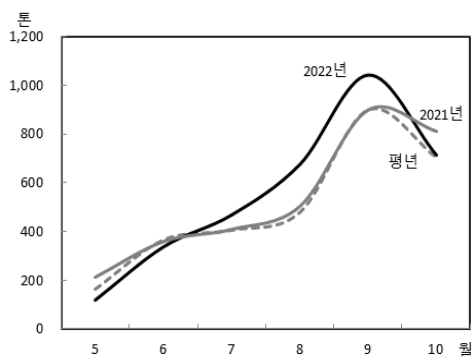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22% 하락한 30,300 원/15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각각 7%,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산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5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됨. 이는 추석 전후 소비 부진으로 잔여 물량이 많았고, 작황 호조로 저장 가능한 상품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생산량 추정
 - 2022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만 5천 톤 내외로 추정됨.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착과수가 증가하였고 생육도 원활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음.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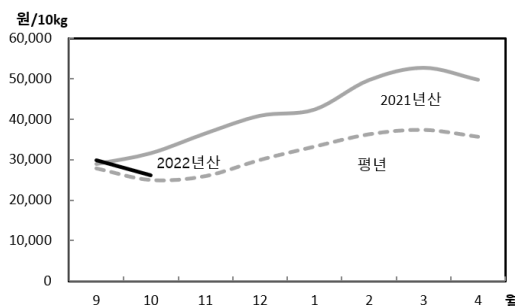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하우스온주(3kg)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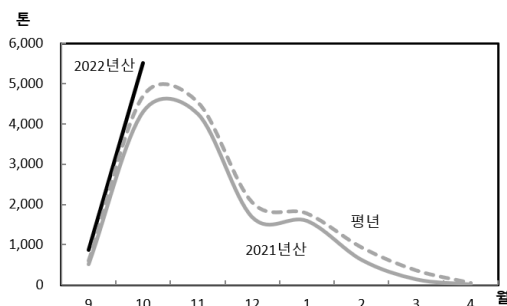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3% 상승한 22,000원/3kg이었음.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 하락한 9,200원/5kg이었음.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유라 등 극조생 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큰 일교차로 착색이 빨라 조기 출하량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6% 적을 전망이다.
- 2022년 생산량 전망
 -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45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면적 비중이 큰 서귀포시 감귤의 해거리 현상과 생리낙과량 증가 등으로 단수가 1% 줄 것으로 예측됨.
 - 금년 노지온주 상품과 비율*은 돌풍 및 태풍 피해가 적어 외관이 양호하며, 생육기 건조한 기후로 당 축적**도 원활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상품과율(농업관측센터 11월호 조사치): 2021년(74%) → 2022년(76%)
 - * 노지온주 당도(제주도농업기술원 발표치/전년 대비): 극조생 1.2 Brix 증가, 조생 온주 1.0Brix 증가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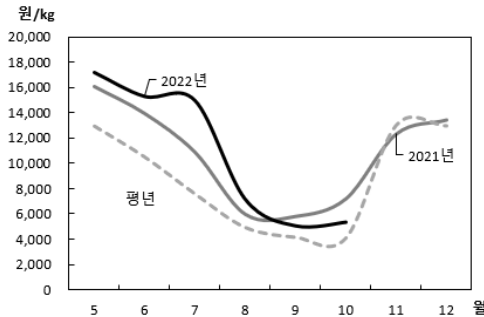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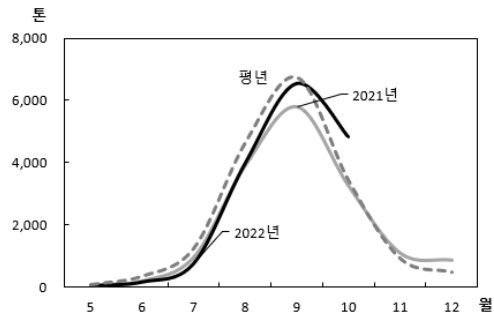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3분기 서촌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증가(전년 대비 27%) 하였으나,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3% 상승한 29,900원/10kg이었음.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17% 하락한 26,100 원/10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병해충 발생이 줄고, 수확기 일조량이 풍부하여 외관과 당도는 전년 대비 양호함. 다만, 착과수 증가로 중소과 비율이 높아 과 비대는 전년 대비 부진함.
- 2022년 생산량 전망
 - 2022년 단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1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됨. 착과수가 증가하였고, 생육기 기상 호조로 단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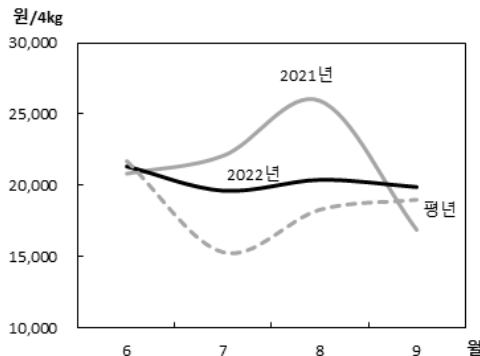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5월 델리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2년 3분기 동향
 - 7~9월 거봉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19% 상승한 21,500원/2kg, 7~9월 캠벨얼리는 전년 대비 14% 상승한 23,200원/3kg이었음.
 - 반면, 7~9월 샤인머스켓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 하락한 29,300원/2kg이었음.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샤인머스켓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49%)와 품질 저하로 전년 대비 41% 하락한 12,100원/2kg이었음.
 - 11월 및 12월 이후 샤인머스켓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산 저장 샤인머스켓이 출하된 금년 1~3월 가격이 높았고, 노지 수확기(9~10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저장 의향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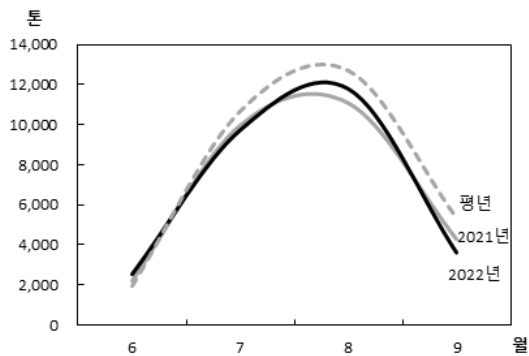
- 2022년 생산량 추정
 -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9만 6천 톤 내외로 추정됨. 병 발생이 적은 등 작황이 양호하였고,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단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음.
 - 샤인머스켓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거봉 및 캠벨얼리는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10%, 13% 감소하였음.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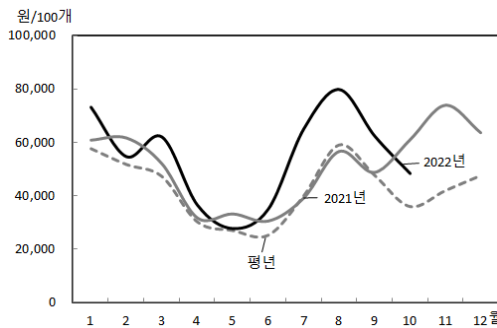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천중도백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21% 하락한 20,400원/4kg이었음.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였으나,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당도 등 품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엘버트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19,900원/4kg이었음. 생육기 강우로 인한 낙과가 많아 반입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 3분기 천도계 도매가격은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9% 상승하였음. 주산지(경북 경산·영천 등)의 건조한 기후로 소과 비율이 높아 반입량이 감소하였고, 당도 등 품위가 좋아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2022년 생산량 추정
 -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0만 4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4% 늘었고,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4%,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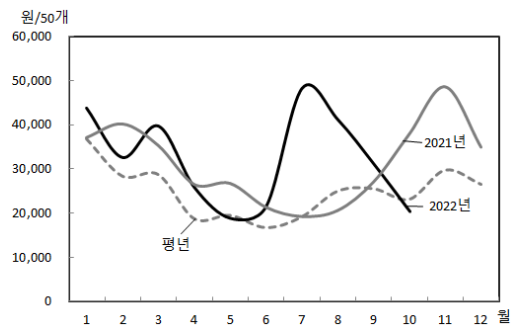
5. 과채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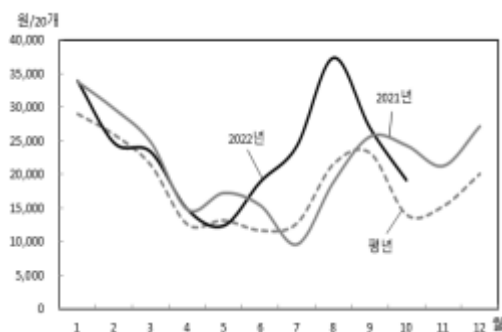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65,000원/100개, 8월 79,700원, 9월 62,3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69,000원으로 전년 동기(48,100원) 대비 44% 상승하였음.
 - 3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산지인 강원·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 악화와 노균병·흰가루병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48,300원/50개, 8월 41,100원, 9월 31,1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40,200원으로 전년 동기(22,300원) 보다 80% 상승하였음.
 - 3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경기지역의 생육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김주영(kimjyyang3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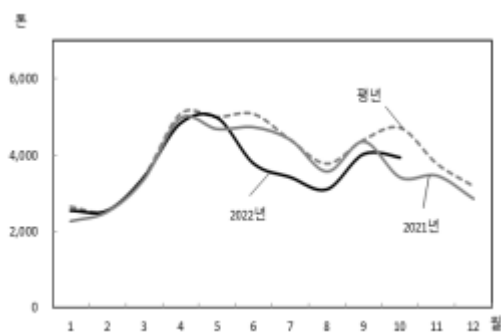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60,800원) 대비 21% 낮은 48,300원/100개이었음.
 - 11~12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영남지역에서 기상 여건(일조량 증가 등)이 좋아 병·바이러스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37,900원)보다 46% 낮은 20,400원/50개이었음.
 - 11~12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호남지역의 면적이 감소하나 기상 여건 양호로 생육이 좋아 병해가 발생하여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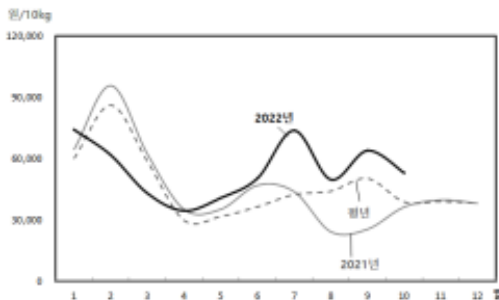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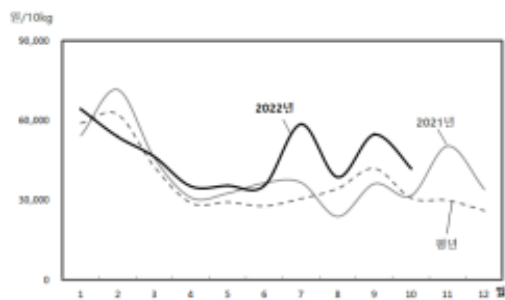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4,200원/20개, 8월 37,300원, 9월 19,2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29,500원으로 전년 동기(18,000원) 대비 64% 상승하였음.
 - 3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잦은 비 등 기상악화로 병·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음.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곰보 바이러스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작황이 좋아 전년(24,300원) 대비 21% 하락한 19,200원/20개이었음.
 - 11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12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영·호남지역에서 기존 재배면적 확대, 작목 전환(청양계꽃고추 등→애호박) 등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3. 풋고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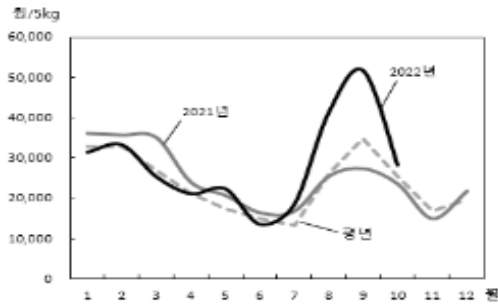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73,900원/10kg, 8월 49,800원, 9월 64,1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31,200원)보다 101% 높은 62,600원이었음.
 - 3분기 청양계꽃고추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여름철 일조량 감소, 고온다습한 날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병해,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58,700원/10kg, 8월 38,700원, 9월 54,8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32,300원)보다 57% 높은 50,700원이었음.
 - 3분기 오이맛고추 가격이 상승한 것은 주산지인 강원지역 기상 여건 악화(일조량 감소 등)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전년(36,300원)보다 46% 높은 53,000원/10kg이었음.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강원 및 충청지역에서 작황 부진으로 전년(31,700원)보다 32% 높은 42,000원/10kg이었음.
 - 11~12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오이맛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 지역에서 품종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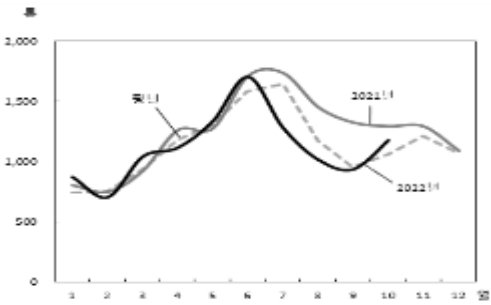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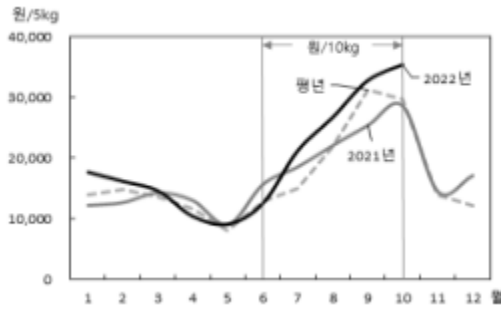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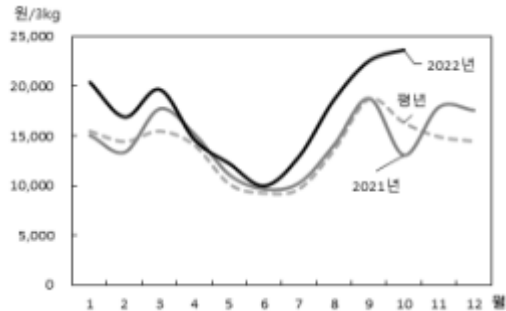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빨강파프리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7월 18,300원/5kg, 8월 41,200원, 9월 51,7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23,100원) 대비 60% 높은 37,100원이었음.
 - 3분기 빨강파프리카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하였음. 주산지인 강원지역 내 기상 여건 악화로 열과 및 낙과 등이 발생하고 생육이 지연되어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20,000원) 대비 41% 높은 28,200원/5kg이었음.
 - 이는 강원지역에서 착과기 잦은 비와 고온에 따른 낙과 발생 및 생육 부진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11월 출하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줄었고, 9~10월 잦은 비로 병충해 및 기형과 발생이 늘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12월 빨강파프리카 출하면적은 강원지역과 전북 남원지역에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나, 영남지역의 품종 전환(노랑→빨강), 재배규모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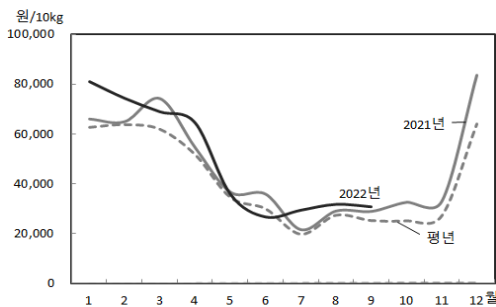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1,200원/10kg, 8월 26,700원, 9월 32,7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22,000원) 대비 22% 상승한 26,900원이었음.
 - 이는 여름철 잦은 비에 따른 일조량 감소와 고온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12,900원/3kg, 8월 18,600원, 9월 22,500원이었음. 3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14,400원) 대비 25% 상승한 18,000원이었음.
 - 이는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28,500원) 대비 24% 상승한 35,300원/10kg이었음.
 - 11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일조시간이 많았고, 생육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12월 출하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늘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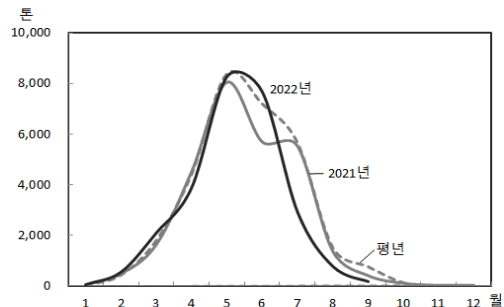
- 10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기상 악화(일조시간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13,100원) 대비 81% 상승한 23,700원/3kg이었음.
- 11~12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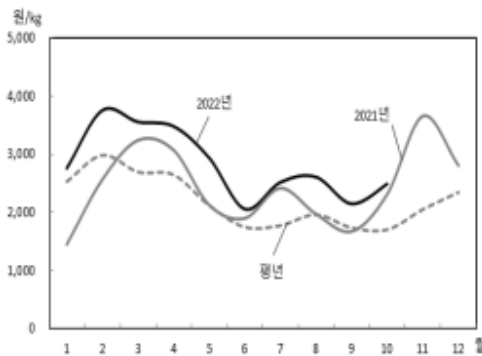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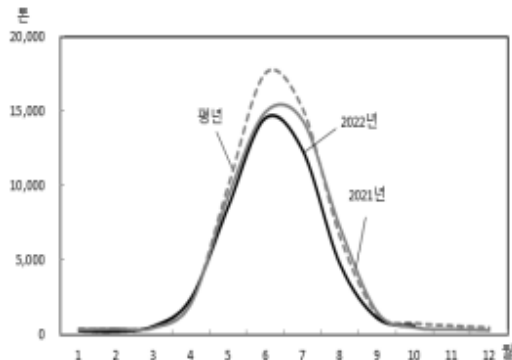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9,200원/10kg, 8월 31,600원, 9월 30,600원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30,400원으로 전년 동기(26,400원) 대비 16% 상승하였음.
- 참외 3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였음. 이는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CGMMV)와 담배·온실가루이 피해, 병해충(총채, 뿌리혹선충 등)이 증가하여 작황이 부진하였고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였기 때문임.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3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7월 2,510원/kg, 8월 2,600원, 9월 2,140원 이었음. 3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2,020원) 대비 20% 상승한 2,420원이었음.
 - 수박 3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음. 이는 잦은 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바이러스 피해가 늘어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2022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2,320원) 대비 7% 상승한 2,480원/kg이었음.
 - 11월~12월 수박 출하량은 영남지역에서 작목 전환, 인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5.8. 딸기

- 2022/23년 딸기 재배면적
 - '22/'23년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음.
 - 전년의 경우, 일찍 정식한 농가에서 고온으로 인해 묘가 고사되거나 병해가 증가하였고, 출하 초기(11월)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 이에 따라 8월~9월 상순 정식의향이 감소하였음.
 - 9월 중·하순 정식의향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이는 이른 추석 명절과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정식시기를 8월~9월 상순에서 9월 중순으로 늦추는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4분기 전망
 - 11월 출하량은 정식 시기 지연으로 출하면적이 감소하고, 고온으로 숙기가 빨랐던 전년보다 단수도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1월 가격은 출하량이 줄어 전년(34,300원)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7)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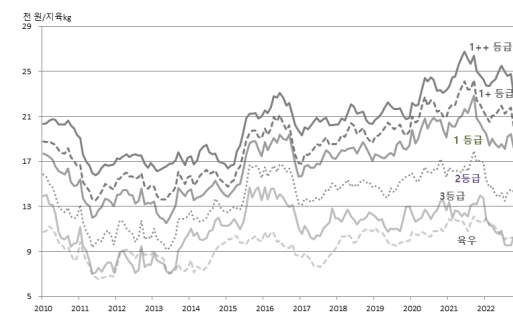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21년			22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p
사육 농장수	94	94	94	93	93	92
총 마릿수	3,568	3,623	3,589	3,558	3,734	3,709
가임 암소	1,564	1,634	1,640	1,620	1,648	1,690

주: 2022년 9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3/4분기 동향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373만 4천 마리)보다 0.7% 감소한 370만 9천 마리(전년 동월 362만 3천 마리보다 2.4% 증가)
 -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354만 4천 마리, 육우 16만 5천 마리
 - * 가임암소 마릿수 169만 마리(전년 동월 163만 4천 마리 보다 3.4% 증가)
 - 3/4분기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전 분기 19,484원/지육kg보다 0.6% 상승한 19,592원(전년 동기 21,952원보다 10.8% 하락, 평년 동기 18,829원보다 4.1% 상승)
- (한우) 4/4분기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41만 5천 마리)보다 3.6% 증가한 353만 8천 마리로 전망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8,000~19,000원으로 전망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태환(kimth3368@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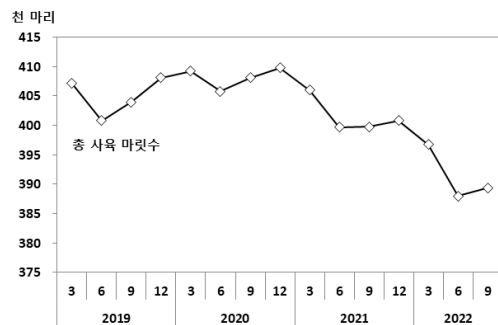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1년(A)	2022년	2022년(B)	B/A
사육 마릿수	12월 341만 5천 마리	9월 354만 4천 마리	12월 353만 8천 마리	3.6%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4분기 20,988원	3분기 19,592원	4분기 18,000~19,000원	-14~-9%

주: 2022년 9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이며, 추후 통계청 확정치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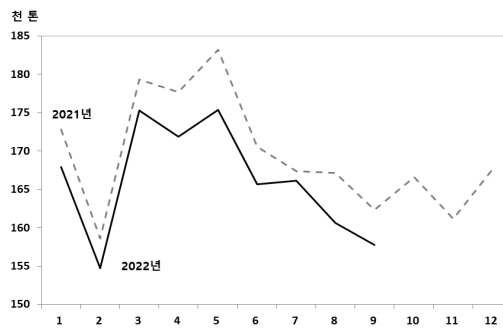
6.2. 젓소

젓소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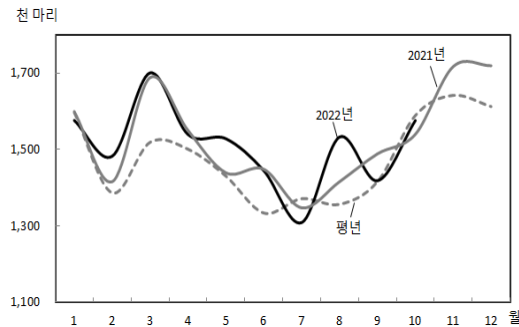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3/4분기 동향
 - 2022년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38만 9천 마리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8만 5천 톤
- 4/4분기 전망
 - 12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3~4.0% 감소한 38만 6천~38만 8천 마리
 - 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4.8~5.7% 감소한 46만 8천~47만 3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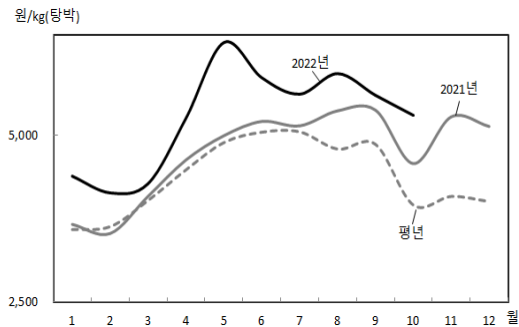
6.3. 돼지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사육 마릿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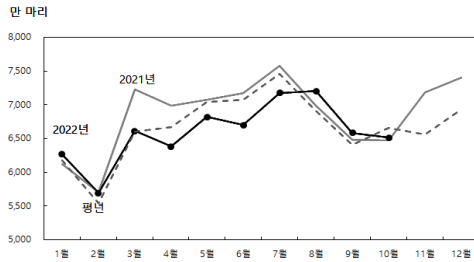
- 모든 사육 마릿수가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사육 마릿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 9월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비육돈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9월말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1,215만 2천 마리(이력제)
-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성 호조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간(425만 1천 마리) 대비 증가한 425만 9천 마리
-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식, 외식 등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간(5,297원/kg)보다 8.0% 상승한 5,721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498만 마리)보다 적은 494만 마리로 전망
- 4/4분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10월 5,336원, 11~12월 5,100~5,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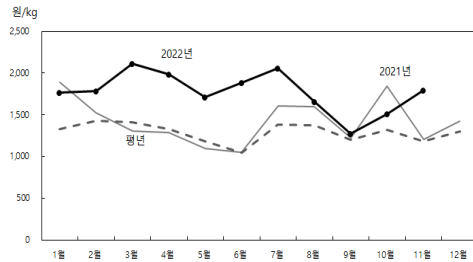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사육 마릿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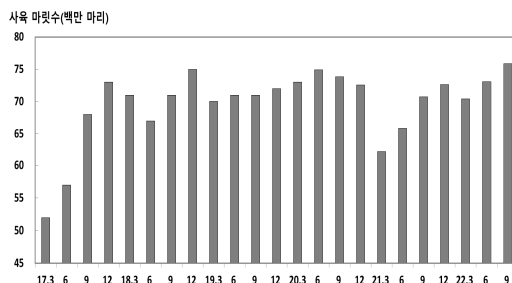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3/4분기 동향
 - 8월말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445만 마리 추정, 평년 대비 1.9% 감소
 - 3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2억 963만 마리, 평년 대비 0.9% 증가
 - 3분기 평균 육계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감소로 전년(1,476원) 대비 12.7% 상승한 1,663원/kg, 평년(1,321원) 대비 25.9% 상승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9월말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3월 신규 입식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35만 마리 추정
 - 10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6,514만 마리, 평년 대비 2.1% 감소
 - 10월 육계 생계유통 가격은 도축 증가로 전년 대비 17.9% 하락한 1,511원/kg, 평년 대비 14.5% 상승
 - 11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생산비 상승 및 소비 부진으로 10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0% 내외 감소한 6,920~7,149만 마리 전망

- 12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줄어 전년 대비 3.0% 감소한 7,094~7,264만 마리 전망
- 11~12월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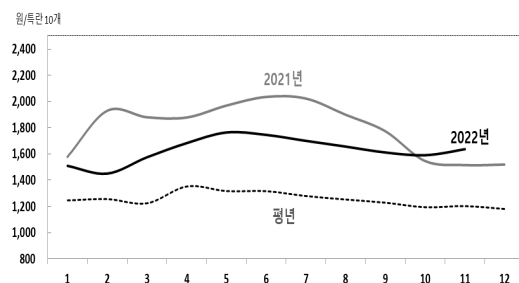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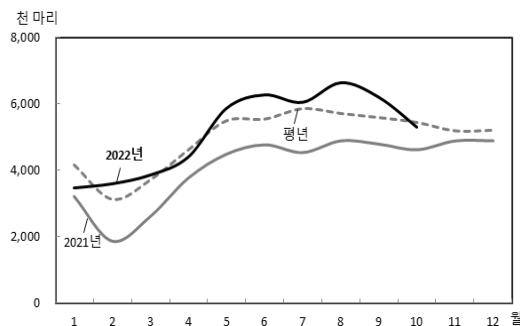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7.3%, 6.9% 증가한 7,586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2.4%, 0.5% 증가한 5,299만 마리
- 9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3.0%, 6.0% 증가한 22만 톤. 그 중 산란초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산란 중기는 10.9%, 산란 말기는 30.8% 감소
- 3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9.3%, 19.9% 증가한 1,490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70.7%, 64.1% 증가한 1,025만 마리

- 7~9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2.9% 하락한 1,655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7월: 1,698원, 8월: 1,655원, 9월 1,611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1~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실용계 입식 마릿수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확산 여부에 따라 사육 마릿수는 감소할 수 있음.
 - 산란용 닭 마릿수는 증가하지만 생산비 상승에 따라 계란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며, HPAI 대비 유통업체의 가수요 증가로 10~11월 중순까지 가격 일시적 상승, 11월 중순 이후 가격 하락하여 전년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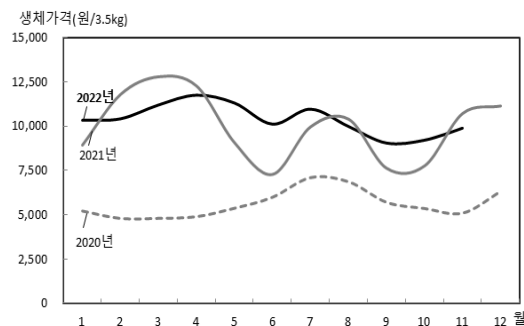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축 마릿수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사육 마릿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3/4분기 동향
 -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HPAI 피해로 사육 마릿수가 적었던 전년 대비 22.1% 증가하고 평년과는 비슷한 920만 마리임. 육용오리와 종오리는 전년 대비 각각 24.0%와 2.5% 증가한 853만 2천 마리와 66만 4천 마리
 - 3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HPAI 발생 피해가 크지 않아 2021년 동기 대비 33.3% 증가한 1,892만 2천 마리, 2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냉동비축물량 급감에 따른 총공급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7.0% 상승한 9,995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12월 국내 오리고기 공급량은 냉동 비축물량이 감소하나, 도축 물량 증가로 HPAI 발생 피해가 컸던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1~12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다소 낮은 10,000원/생체 3.5kg 내외로 전망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64	80.0
	4~5명 이하	37	11.2
	6명 이상	29	8.8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배현정(bhj923@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7%, 300m²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80.0%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2년 3/4분기 음식점 경기 동향은 2.91(5점 척도)로 전년 동기(2.42)대비 상승하였고, 전 분기(2.92) 대비 감소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1년 3/4분기	2022년 2/4분기	2022년 3/4분기
2.42	2.92	2.91

주: 음식점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7~9월) 매출은 전년 동기와 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매출 증감률이 5% 정도인 3.04, 3.03으로 나타남.

음식업 매출 동향(5점 척도 기준)

전년 동기 (21년 3/4분기)	전분기 (22년 2/4분기)
3.04	3.03

- 2022년 4/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2년 3/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100.3으로 나타나 전 분기와 매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2년 3/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8% 증가하였고,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감자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음.

곡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6.8	-0.1	-0.4	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쌀,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4/4분기) 대비 각각 9.7%,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9.7	4.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2년 3/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 엽근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무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거나 0.5~1.7% 증가함.

-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건고추와 대파의 경우 각 2.9%, 2.5% 감소했고, 나머지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0.4~2.1%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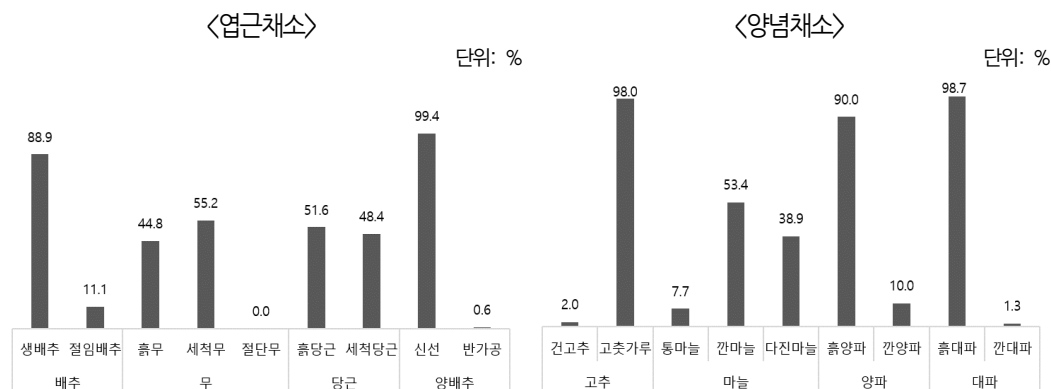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0	건고추	-2.9
배추김치	1.5	고춧가루	0.4
무	-0.2	마늘	2.1
당근	1.7	양파	0.5
양배추	0.5	대파	-2.5
소계	0.7	소계	0.2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양배추(99.4%), 대파(98.7%), 홍양파(90.0%), 생배추(88.9%)이며, 무, 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2년 3/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3.4%), 깐양파(52.0%), 고춧가루(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대파, 배추, 무는 전체 구매의 9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내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중국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67.9%)'가 가장 높았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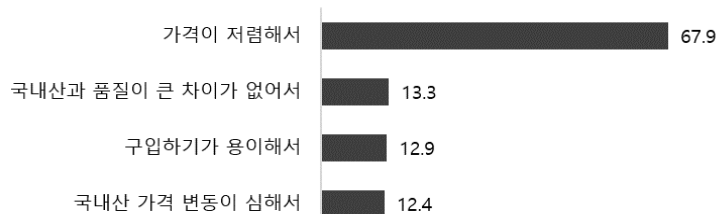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1년 3/4분기		2022년 3/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5	0.5	99.6	0.4
	배추	99.4	0.6	99.7	0.3
	배추김치	26.9	73.1	26.6	73.4
	당근	64.1	35.9	61.7	38.3
	양배추	89.0	11.0	89.1	10.9
양념채소	건고추	58.3	41.7	63.2	36.8
	고춧가루	51.8	48.2	55.1	44.9
	통마늘	93.8	6.3	86.9	13.1
	깐마늘	60.8	39.2	61.8	38.2
	다진마늘	59.2	40.8	55.6	44.4
	홍양파	87.6	12.4	88.9	11.1
	깐양파	50.8	49.2	48.0	52.0
	대파	99.8	0.2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채소류 구입한 이유

단위: %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2년 3/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29.8%이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56.0%로 완제품의 구매 비율이 더 높음.
 - 100%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 하겠다는 응답은 23.7%이며, 반대로 현재 100%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남.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입
29.8	56.0

주: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중 직접제조 및 완제품 외에 무응답 비율은 14.2%로 나타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채소류 월평균 예상 구매량 중 엽근채소는 전년 동기(2021년 4/4분기)와 비교해 7.1%, 양념채소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9~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건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0.5	건고추	-2.9
배추김치	5.9	고춧가루	3.9
무	5.9	마늘	7.0
당근	6.9	양파	4.6
양배추	6.7	대파	3.8
소계	7.1	소계	4.6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2년 3/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3.6%,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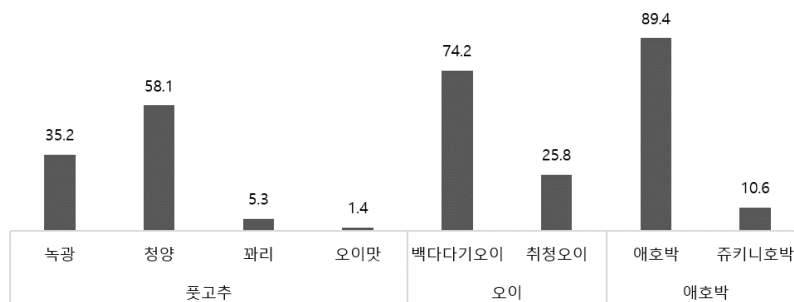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3.6	0.7	7.1	3.1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으로는 청양계풋고추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5.2%), 파리고추(5.3%), 오이맛(1.4%) 순으로 구입함.
 - 오이는 취청오이(25.8%)보다는 백다다기오이(74.2%)를, 호박은 주키니(10.6%)보다는 애호박(89.4%)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4/4분기) 대비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1.0%, 7.7%,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7.7	4.4	11.0	6.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물

- 2022년 3/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 쇠고기와 계란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4%, 1.2% 증가하였고,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각각 2.7%, 2.5%, 1.2% 감소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4	-1.2	-2.5	-2.7	1.2	0.8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 국내산 구

입 비중은 같았고, 미국산 구입 비중은 1.1%p 증가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2.3%로 전년 동기 대비 3.5%p 감소하였으며, 그 외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2.4%p, 1.1%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5.3%,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3/4분기					2022년 3/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9.5		72.9		17.7	9.5		71.7		18.8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5.8	11.2	6.3	12.6	1.9	62.3	10.8	8.7	13.2	3.0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84.0	7.1	7.9		1.1	85.3	6.3	7.2		1.1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4/4분기)와 비교해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의 4/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3.2%, 2.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각각 2.7%,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5.4	3.2	-0.2	-2.7	2.1	2.3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2년 3/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 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1.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22.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8.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 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1.8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22.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8.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1.4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6.2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6.7%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6.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6.1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	5.5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4.5%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수박이 2.7%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와 '국내산보다 맛이 좋아서'가 각각 50%의 비율로 나타남.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수박	2.7	오렌지	0.6
참외	2.1	배	0.3
파인애플	1.2	바나나	0.3
수입포도	0.9	방울토마토	0.3
사과	0.6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5.5%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50
국내산보다 맛이 좋아서	50
소계	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7 요약 및 시사점

- 2022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1년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채류, 축산물, 엽근채소, 양념채소는 각각 3.1%, 0.8%, 0.7%,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4/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엽근채소, 과채류, 양념채소, 축산물은 각각 7.1%, 6.9%, 4.6%,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순으로 높음.
 - 수입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69.0%)’가 가장 높게 응답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전년 동기 대비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2.3%로 약 3.5%p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 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1.8%)’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22.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8.2%)'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업체의 36.7%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6.1%)'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4.5%로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수박, 참외, 파인애플, 수입포도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 ❶ 치유관광의 대두와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 ❷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시사점

치유관광의 대두와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김정현*, 김재수**

1. 치유관광의 대두

1.1 지금 왜 치유관광인가?

-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하고 힐링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치유’, ‘힐링(Healing)¹⁾’, ‘치유관광(Health tourism)²⁾’, ‘치유농업³⁾’ 등 관련 용어가 자주 대두됨.
-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여 ‘치유농업’,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⁴⁾’ 등이 강조되고, 관광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유관광이 세계적인 유행으로 떠오름.

* 경희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홍콩 폴리텍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 1) ‘치유’는 치료를 통해 상처나 병을 낫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위안적 과정을 의미한다. ‘치료’는 ‘상처나 증상을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행위’이다. 즉, 의료기술이 동원된 의학적 행위를 말하나,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일도 있다.
- 2) 치유관광은 영어로 Healing tourism 또는 Health tourism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안에 메디컬, 웰니스 투어리즘을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여가를 통한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관광 활동’이다 (김진옥, ‘치유관광의 개념모델 정립 및 치유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5).
- 3) 치유농업은 ‘치유’와 ‘농업’을 합한 개념이나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치유농업을 돌봄 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green care farming), 건강 농업(farming for health)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우리나라 치유농업법(제 2조)에서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한다.
- 4) 웰니스는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참살이)에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결합한 합성어다.

-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핵심 이슈로 대두된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촌복지 향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줌.
 - 국내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치유농업 연구개발, 치유농업법령⁵⁾ 제정, 치유농업 교육, 치유농업사 양성 등 관련 정책·제도를 추진하였음.
-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증대 및 여행을 통한 심신 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치유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름.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 피로’를 ‘치유관광’으로 해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⁶⁾가 커지고 있으며, 단순하게 즐기는 차원이 아닌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의료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음.
 -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2020년 4,357억 달러(약 560조 원)에서 6,919억 달러 급증한 2025년 1조 1,276억 달러(약 1,454조 원)로 전망함⁷⁾.
 - 또한 웰니스 관광은 미국, 그리스, 터키 등 관광 대국들도 강조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치유관광이 각광 받는 데에는 감염병 사태가 가져온 영향도 존재하나, 근본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의 인식변화에서 기인함.
- 이러한 치유관광은 향후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됨.

5) ‘치유농업법’의 정식 명칭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6) 김정현 ‘치유관광, 제대로 키우자’, 매일경제, 2022.06.21

7)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노화(Antiaging)’와 관광을 결합한 웰니스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리스·터키·일본 등 관광 대국들도 ‘헬스 투어리즘’ 슬로건을 내걸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 서비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최희정, 여행+관광, 웰니스 관광 시대 대비해야, 중앙일보, 2022.6.16.).

1.2 코로나19와 치유관광

-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며, 특히 국민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를 매우 증가시켰⁸⁾.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지구의 날 환경문제 여론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무기력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인 ‘코로나 블루’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21 사회 동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 고위험은 20%에 이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비중이 85%를 넘었음.
- 이로 인한 무기력, 의욕 저하, 공포, 분노 증가 및 생활 습관성 질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 이러한 국민의 스트레스 증가와 건강상의 문제들은 국민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침.
 - 통계청의 ‘2021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스트레스·피로감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보다 국가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점을 지적함.
-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관광이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안전하다는 국민 인식이 매우 높으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의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부터의 농촌관광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부정+매우 부정)이라는 13.8%, 보통이라는 32.9%, 긍정적(긍정+매우 긍정)이라는 53.3%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농촌관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인식은 66.1%로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농촌관광을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의향도 83.7%를 차지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와 피로감 확산, 무기력 증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 대안 중 하나로 치유관광이 대두됨.

8)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기별 결과 보고’, 2021.01.11

- 여기에 도시민의 탈출 요구증대가 자연스럽게 농촌을 대상으로 이어지며,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이나 치유관광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하게 됨.
- 이러한 요구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맞물려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정책을 기대하게 됨.
- 치유관광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함은 물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이자, 나아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행복해지며 농촌 활성화와 농촌의 인구 유입도 기대할 방안이라 할 수 있음.

1.3 농촌 치유관광의 증가

- 치유관광의 한 분야인 농촌 치유관광⁹⁾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 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을 말함.
 - 김경희(2020)¹⁰⁾는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에서 치유 요소를 가진 관광과 체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 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이라 정의함.
- 큰 틀에서의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관광의 한 분야이며,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대부분 스트레스 해소, 심신의 일상 회복 및 건강 추구가 목적임.
- 치유 수단으로는 다양한 농업과 농촌자원, 농촌생태를 활용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심리적 치유를 함.
 - 김경희(2020)¹¹⁾는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환경

9) 농촌 치유관광의 개념, 선행 연구, 기존 관광과의 차이 등은 김경희·황대용, '농촌 치유관광의 당면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26권 2호

10) 김경희,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부상', 농어민 신문, 국회 토론회 자료, 2020.11

11) 김경희·황대용, '농촌 치유관광의 당면과제', 농촌진흥청, 2019

과 자연경관, 시설, 문화, 생산물, 음식, 공동체, 주민 및 참여자와의 교류 등 다양한 자원이 모두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농촌자원의 치유적 요소를 관광의 매력물로 상품화하는 것이라 설명함.

- 농촌관광과 농촌 치유관광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비슷하나 목적과 효과가 다름.
 - 김경희 등(2019)은 농촌관광이 농업·농촌의 경험, 여가활동, 교육 체험 등이 목적이라면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난 치유적 요소를 가진 관광과 체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함.
 - 또한 농촌관광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확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농촌 치유관광은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일상 회복, 건강증진 등을 기대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함.
- 농촌 치유관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서는 먼저 농촌관광의 인식증대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농촌관광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농촌을 찾는 관광객 수는 전체 국민의 약 3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¹²⁾됨.
 - 또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 표기)의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022)’에 의하면, 최근 4년간(2019-2022) 농촌관광에 대한 선호도는 2019년 50%에서 2022년 80%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³⁾.
 -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어나며 농촌관광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며, 다양한 형태의 치유관광 활동이 농촌에서 이루어짐.
 - 여행과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 최근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그리고 캠핑, 차박, 자전거라이딩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현실을 잘 나타내줌.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관광 실태조사 2020’(2021.10.2.-11.30일간 전국 2,000명 조사)

13)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 동기는 1위가 일상 탈출/휴식(32.2%), 2위가 즐길 거리/즐거움을 찾아(22.7%), 3위가 농촌 자연경관 감상(10.8%), 4위가 지역 농축산물 구매(8.3%). 5위가 새로운 경험(7.5%)으로 나타난다,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 농촌은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관광지역이며, 농업인의 생명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의 휴식 공간이므로 증가하는 농촌 관광객 및 탈도시 인구가 자연스레 치유관광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우리나라는 산, 강, 바다 등 농어촌 환경과 생태, 역사, 문화와 음식과 같은 뛰어난 농어촌의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의 핵심 자원인 동식물 자원과 농촌관광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치유관광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면역력 증진이나 저항력 증진 등 치유 관련 음식이나 식품¹⁴⁾도 인기를 끌고 있음.
- 다만, 농촌에서 거주하는 관광일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숙박 관광객 수는 정체되는 상황¹⁵⁾으로 나타남.
- 다음 요인으로서는 도시민의 탈도시 수요 증가와 귀농·귀촌 증가가 있음.
 - 도심 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민의 도시탈출 욕구와 행태가 증가함.
 - 도시민의 탈도시 수요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나, 코로나19 이후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탈도시 수요가 증대됨.
 - 소비자의 기호가 휴식, 절제, 감성, 소통, 자신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최근 스마트산업, 융복합산업, 소프트파워 등으로 변하는 상황임.
 -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며 여행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이 탈도시 욕구와 겹쳐 농촌 치유관광 수요를 증대시킴.
 - 인간은 기본적으로 녹색갈증¹⁶⁾을 가지며, 여기서 녹색갈증이란 인간은 본질

14)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유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건강식, 기능성 등 한국 음식이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적 관광 자원이기 때문이다.

15) 평균 농촌관광 일정은 2003년 2.22일에서 2018년에는 1.73일로 감소하고, 당일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대신 숙박 관광객은 정체된다. 이는 교통 발달과 농촌 숙박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16) 녹색갈증(Biophilia)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 생명이 있는 것 혹은 생명과 관련된 것에 끌리는 심리적 성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1929~)이 1984년 그의 저서 《바이오펜리아(Biophilia)》를 통해 바이오펜리아 가설을 주장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사공정규 동국대 정신의학과 교수 발표 자료).

적으로 녹색의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갈증 때문에 결국 자연으로 돌아온다는 인간의 자연 회귀 본능을 말함.

- 최근 농촌체험 관광 참가자들이 농촌관광에서의 새로운 인식, 즉 휴식 기회 제공, 정신적 치유 및 치료 도움,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휴양과 치유를 중시한다¹⁷⁾는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농촌관광 수요증대로 이어짐.
- 최근 귀농·귀촌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증가의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밀도 농촌 생활에 관한 관심 증가와 사회경제적 여파 및 도시주택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
-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량은 7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만 명 감소했으나, 2021년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역대 최대로,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해석됨¹⁸⁾.

● 마지막 요인으로는 기존 관광 정책의 전환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은 콘텐츠가 미흡하고, 도시 쇼핑 위주의 관광이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음.
- 또한 관광 정책의 중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으며, 한류 열풍 등과 같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함.
- 2019년 1,750만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보였던 외래 관광객은 코로나19로 2021년 96만 7천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한국의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외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 산업 전반의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피해지원 은 융자금 상환 연기 등에 불과하며, 이러한 관광 환경 전반의 여건 변화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신상품을 요구하게 됨.

17) 장정희 외, 치유체험 관광 자원으로서 치유농업의 고찰, 한국 농어촌 관광 학회지, 제24권 1호

18) 농촌 여성 신문, 2022.06.28

- 특히 보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전통적인 관광 형태에서 농촌관광과 힐링 분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높음.
- 새 정부에서도 치유관광을 관광 산업의 재도약 기회¹⁹⁾로 삼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치유와 힐링 목적의 관광인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국정과제²⁰⁾로 제시하고 있음.
- 범 정부차원으로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추진하는 등 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임.

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치유관광, 일상 회복과 관광 산업 재도약을 이끈다.’, 2021.11.02

20)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20

2. 농촌 치유관광과 치유농업과의 연계

2.1 농정의 중점 변화와 치유농업의 대두

-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
- 치유농업의 대두는 사회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농정의 중심이 변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임.
- 이러한 농업정책 차원에서 농촌관광 및 농촌의 치유관광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2.1.1 농업정책의 중점 변화

- 국내 농업 중점이 농산물 생산증대 위주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하였으며, 농정의 주요 과제도 배고픔 해결을 위해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에서 질 좋고, 안전한, 힐링 먹거리로 이동함.
- 이러한 농정 중점의 이동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농정의 중점 변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먼저 쌀을 비롯한 중 작물의 생산증대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증대만으로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한계가 존재하거나 농촌의 소득원이 다양화되었거나, 농촌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농업인 인식이 변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농촌관광이나 오락, 건강 및 복지 정책이 새로운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함.

2.1.2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농작물 생산 공간’이며, 농산물 생산 공간에 인식이 한정되면 농촌은 ‘농민의 일터’로서의 역할에 모이게 됨.
- 농정의 중점이 이동되자 농촌 공간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며, 관광·휴양·오락·교육·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공간 역할이 강조되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공간이라는 역할이 등장함.
- 농촌 공간의 역할 변화는 여러 가지를 내포함.
 - 먼저 농촌 공간이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공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농업인의 생산 공간을 넘어 국민의 치유, 자연 친화적 삶, 건강과 휴식 및 오락공간으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는 다른 측면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농업’으로 자리 잡는 계기도 됨.
 - 다음으로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은 농촌관광 증대를 가져오며, 영농기 외에 농촌 공간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남.
 - 또한 농촌관광, 관광 농장, 교육농장, 체험농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농업을 위한 도농 교류와 협력 증진 및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농촌의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를 가져옴.
- 새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²¹⁾도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추진이며, 이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을 도입하여 통합 지원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이러한 농촌 공간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인 ‘치유관광’에 대한 인식도 높임.

21) 2022.8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가칭)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추진('22말)

2.1.3 치유관광 증대와 농촌 융복합사업의 확대

- 다양한 형태의 교육농장, 체험농장, 돌봄농장이 농촌현장에서 활발히 운영됨.
 - 전국적으로 약 600개의 치유농장이 운영, 운영 형태는 관광 농업, 교육농장, 체험농장 등 여러 가지이며, 내용 면에서 치유농업의 형태를 띰.
- 치유농업은 초기에 교육이나 체험 중심의 농장에서 출발, 최근에는 관광·건강 증진·치유·힐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됨.
- 특히 농촌 현장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남.
 -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 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관광·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이 펼쳐짐.
- 더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시행되어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함.
 - 동법(제43조 2)에 정부의 치유농업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원 지원 근거 마련 및 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법(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4일 제정,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6차 산업은 지역 농업 지향적이며, 소비자와 시장 지향적임.
 - 6차 산업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융복합하며, 협업체제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경영관리 역량 제고, ICT 도입 등을 통해 6차 산업은 농촌의 새로운 사업으로 한 축을 형성함.
- 최근 치유농업은 6차 산업이나 융복합 형태의 치유농업을 넘어 사회적재활, 수형자 교육, 일자리 만들기 등 타 부문으로 확대됨.
 - 농업생산이나 체험을 넘어 농촌관광, 치유 음식, 농촌 고용,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약자 돌봄 등으로 치유농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함.
- 치유농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사회적 통합과 사회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농촌 지역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주는 신산업으로의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2.1.4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재인식

-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가짐.
 - 환경보전 기능²²⁾, 식량안보 기능²³⁾,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 사회 유지 기능²⁴⁾, 치유기능²⁵⁾ 등이 있음.
 -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로 인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강조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이 새로이 강조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과정에서 강조되었으나, 최근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됨.
- 최근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 사회 유지 기능도 강조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회복에 기여하므로 자연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로 치유농업이 대두됨.

2.2 인구구조변화와 건강 비용증가

- 최근 농촌 치유관광이 대두된 배경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농촌과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음.

22)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수질 및 대기 정화, 토양 유실 방지, 생태계 유지 기능 등

23) 식량 공급, 식량 안전성, 식량 활용 등

24) 정서 함양, 전통 문화 보전, 지역 사회 유지, 자연경관 제공 등

25)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 개발 등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²⁶⁾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15.7%이던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17.5%로 증가함.
- 통계청은 2024년 상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나라별 초고령사회 진입 기간은 프랑스가 39년, 독일은 37년, 일본은 12년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진입하여 선진국과 비교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임.

고령화 진입 속도

국가	도달 연도			소요 연수	
	고령화 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국	2000	2017	2025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미국	1942	2015	2036	7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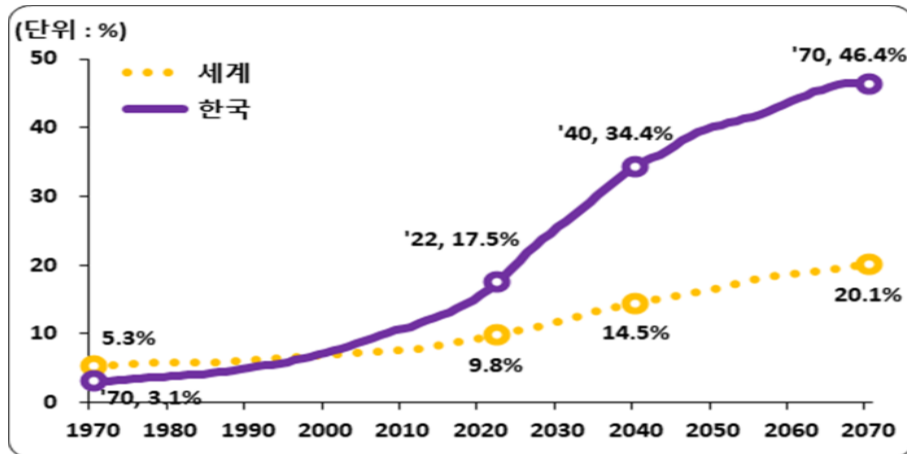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임.
 - 통계청(2022)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17.5% 수준인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740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²⁷⁾함.
 -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중으로, 홍콩을 제외하면 204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며, 2068년에는 홍콩마저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됨.

26)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고령화 사회, 14%를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27) 경향신문, 2022.09.05

세계와 한국의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경향 신문(2022.09.05.일자)

- 또한 전국의 인구소멸 위험지역(2020.05 기준)²⁸⁾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에 이르며, 대부분이 농촌 지역임.
- 또한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경제 침체는 농촌의 활력을 저하하고, 농촌 사회 소멸을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함.
-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과 복지비용의 증가, 사회적 갈등과 폭력 증가 등 많은 국가적 문제를 가져옴.
- 그 결과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됨.
 - 고령화 증가는 만성 고혈압, 노인성 치매, 정신 질환 증대로 이어지고 노인의 건강 비용증가로 나타남.

28)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 건강 보험에서 노인 진료비 비중은 40%를 넘어섰으며, 건강 수명은 70.4세,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 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12년 나는 것을 미루어보아 앞으로 이러한 비용증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예산 규모도 많이 늘어남.
 - 복지예산 규모는 2020년 16조 6천억 원에서 2067년에는 9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²⁹⁾함.
 - 2022년 국가 전체 예산 규모 607.7조 원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97.4조 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합친 규모는 총 216조 원으로 전체의 36%에 달함.
 - 2023년 국회에 보고된 복지예산 규모는 226조 6천억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보험 지출액은 3조 7,473억 원임.
-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과 논쟁이 분분하며, 결국 기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이에 비해 사회 전반의 행복 지수는 낮아짐.
 -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37개 국가 중 35위에 이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임.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 질환을 경험하는데, 생애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³⁰⁾.
- 농업인들도 고령화, 건강 악화, 우울증, 자살자가 증가함.
- 농촌에서의 생활 습관성 질환 증가는 의료비 부담을 증대하고, 환경성 질환이나 환경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를 초래함.

29) 김원식 외,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자료

30)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 질환 실태 역학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는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니코틴 사용 장애 6.0%, 기분장애 5.3%,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5%, 약물 사용 장애 0.2%이다.

2.3 국내 치유농업 추진상황

2.3.1 농촌진흥청

- ‘치유’라는 개념보다 ‘힐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치유 역사는 비교적 탄탄함.
-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함.
 - 산림청은 10년 전부터 산림치유를 시작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함.
 -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치유농업이란 용어도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처음 사용함.
- 초기의 치유농업은 주로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한 원예치료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동물이나 곤충, 경관, 관광 치유 등으로 발전됨.
- 2013년 치유농업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립, 2017년부터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연구를 추진함.
- 농촌진흥청은 2020년 3월 24일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치유농업법(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
- 불모지 같은 치유 분야에서 농촌진흥청이 선도적으로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등 치유농업 기반을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점임.
 - 2021년 4월 ‘치유농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치유농업사 양성, 시설과 품질관리, 기반 구축, 홍보 강화 등 치유 관련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관련 정책³¹⁾은 크게 연구개발, 성과확산, 기반 구축, 부처 간 협력 및 사업화 촉진과 같이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1) 농촌진흥청의 구체적인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는 장정희,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2021.05)’ 심포지엄 자료 참조

- 연구개발 분야: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타 기관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³²⁾을 가지고 있음.
 - 치유농업의 본격적 추진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치유농업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조사, 평가, 회의 등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치유농업자원 발굴, 프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환경 조성 및 활용기술 개발, 치유 효과원리 규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됨.
 - 현장에서 주로 치유농업 교육성과,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치유 효과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들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내었으나, 앞으로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더 높여나가야 함.
- 치유농업 성과확산 분야: 가장 중요한 성과인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21.03.25.)임.
 - 동 법령 제정을 기초로 치유농업사 양성, 양성 기관 지정(2021.05.20.), 자격시험관리 고시(2021.07.26.) 등 많은 치유농업 정책을 추진함.
 - 치유농업 관련 법령은 다소 보완 해야 할 점은 있으나, 초기기반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향후 치유농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여 치유농장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함.
- 치유농업 기반 구축 분야: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관련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함.
 - 중앙과 지방의 광역 거점 기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 서비스 시설 확대,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위한 치유농업센터³³⁾를 설치함.

32) 치유농업 연구개발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20종, 응용연구 33건, 국내 논문 25건, 학술 발표 60건 등이다. 2021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60여 개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33) 2021년 2개소(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경북도 농업기술원)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식물, 동물, 곤충, 경관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과 치유농업시설 234개소³⁴⁾를 구축함.
- 또한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교육과정 운영, 치유농업사 양성³⁵⁾, 각종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치유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함.

사·도별 치유농장 현황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별 광역시
합계	234	40	36	10	43	29	29	10	27	2	8
국비 지원 농장	78	10	12	8	5	10	12	7	11	2	1
지방비 지원 농장	156	30	24	2	38	19	17	3	16		7

자료: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2022).

- 부처 간 협력과 사업화 촉진 분야 :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와의 치유농업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 노인,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낸.
 - 본격적인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나 협력을 강화하여 치유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치유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농장의 수익 구조가 튼튼하여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치유농업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국내에서의 치유농업 추진 기간은 길지 않으나, 농촌진흥청은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나름의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음.

34) 구체적으로 치유농장이 191개소, 치유 마을이 43개소임. 지원 내용별로는 국비 지원이 78개소(농장 45, 마을 33), 지방비 지원이 156개소(농장 146, 마을 10)임.

35) 21년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93명 배출(2022.02)

2.3.2 산림치유

- 산림청은 '산림치유'의 이름으로 타 기관보다 먼저 10여 년 전부터 치유 사업을 추진함.
- 산림치유 업무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 치유, 생태관광, 산악레포츠 등 다양함.
- 산림치유 관련 법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2005)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2015)이 있음.
- 동 법령과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산림문화 휴양 기본 계획수립(08-17), 산림치유 활성화 추진 계획수립(12-17), 산림복지 진흥계획수립(18-22) 등 다수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였음.
 - 산림치유 활동은 기본 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 치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 산림치유는 그간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 수준 자리 잡은 실정임.
- 산림치유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37개, 2021년 기준),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754건, 2020년 기준), 유아 숲 체험원 설립(404개소), 산림 교육 센터 운영(22개소), 숲길 등산 지도사 운영(2,484명), 숲 해설사 운영(16,620명), 유아 숲 지도사 운영(7,630명) 등이 있음.
- 산림치유는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꾸준히 발전하여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문화휴양, 산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3.3 해양 치유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동·서·남해안마다 해양 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치유자원을 보유³⁶⁾하고 있음.
- 그러나 해양 자원의 활용이나 산업화는 외국³⁷⁾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 이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유용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인식, 해양 자원의 정보 제공, 홍보, 관련 인프라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해양 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의 우수한 여건을 활용하여 해양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해양 자원의 산업화방안을 추구하고 있음.
- 2020년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해양 치유관리단 운영(2021.07) 등 해양 치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지역단위의 치유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지자체³⁸⁾를 선정하여, 해양 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양 치유 가능 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기후 경관 등 8개 자원³⁹⁾의 효과를 확인하였음.
- 향후 해양 치유효능 검증강화, 추가 자원 발굴, 사용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6) 우리나라 해양 치유자원은 다양하나 갯벌, 해양생물(13,000여 종), 해양경관, 소금(천일염) 등 해양 치유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자원이 있다. 또 해변 운동 가능 해수욕장(모래 해변 길이 2km 이상) 13개소, 서울시 4배 면적의 갯벌, 세계 4위의 해조류 양식 생산량(FAO) 등을 보유한다(해양수산부 업무자료).

37) 외국은 해양기후·경관·생물, 해수(염지하수), 갯벌, 토탄(퇴적물), 소금 등과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해양 치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초 해양 치유센터를 Roscoff 지역에 건립(1827)하고, 국립 해양 바이오 센터와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 및 자원 발굴을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의 경우 해양관광·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융·복합한 해양 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해양수산부 업무자료).

38)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39) 해양기후 경관, 해수, 염 지하수, 바다 모래, 피트(퇴적물), 머드, 소금, 해조류

2.3.4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 치유농업의 가치는 다양하며, 치유농업이 가져오는 효과도 여러 가지임.
- 치유농업의 가치는 치유농업의 영역과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과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이 존재하여 평가 방법과 이러한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많음.
-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한 국민 건강의 유지·회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치는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일정한 전제하에 치유농업 효과를 부분적으로 추정하는 정도임.
- 치유농업의 기능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 들 수 있으나, 계량화함에 한계가 존재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 사회 유지 기능, 치유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
-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음.
 - 대표적인 직접법으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있으며, 이는 비시장적 재화에 대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부여한 후 각각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불 의사(Willing to pay)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간접법으로는 대체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성거래법, 여행비용법 등이 있음⁴⁰⁾.
- 국내에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음.
 - 2013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⁴¹⁾된 바 있으며, 충남대학교 조사 결과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조 7,274억 원⁴²⁾, 후방 산업 전 인효과 포함 시 4조 5,000억 원⁴³⁾ 또는 5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함.

40)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사 교재 2021. p.26. 다만 이러한 평가 방식에 논란이 있으며, 평가의 전제, 평가 결과,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에 관한 추가 연구나 공론화,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41) 농촌진흥청, KM 컨설팅, 2013

42) 김대식, 충남대학교, 2019

43)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농촌진흥청, 제 3회 농업기술 혁신 포럼 자료 초안

- 치유농업 관련 분야를 어디까지 포함하나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짐.
- 치유농업법에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농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요함.
- 특히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규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치유농업정보망 편익 산출에 따르면 CVM(Contingent Value Method) 방법을 통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1,863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가치는 2025년 기준으로 약 4,500명으로 나타남⁴⁴⁾.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치유농업의 ‘제1차 종합계획(22-26)’에 따르면, 기간 중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2,54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349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889억 원으로 분석됨⁴⁵⁾.
- 치유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에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가 존재하므로 많은 전제와 한계가 따름.

44) 농촌진흥청, 2021, 교재. 치유농업시설 개소당 평균 고용 창출을 4.5명으로 계산

45)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종합계획 연구용역(2021)

3. 농촌 치유관광 발전 방안

-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이러한 치유농업은 새로운 트렌드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
- 우리나라 관광 산업 역시 중요하며, 그간 양·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관광 경쟁력도 매우 높아짐.
 -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은 2007년 42위에서 2019년 16위로 상승하였으며, 관광 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108조 원에 이름.
 - 윤석열 정부는 관광 산업의 규모는 2027년까지 180조 원 규모⁴⁶⁾로, 관광객 수는 2019년 기준 1,750만 명에서 2027년까지 3,0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관광의 부가가치유발이나 취업유발 효과⁴⁷⁾는 매우 크나, 관광 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함.
 - 코로나19 이후로는 치유관광이나 웰니스 관광이 증가함.
- 농촌 치유관광은 이러한 관광 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광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며, 관광 산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
-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대학 살리기, 농촌소멸을 방지할 수 있음.
- 농촌 치유관광의 발전을 위한 중요 방안은 다음과 같음.

46)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참조.

47)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매출 1원당 0.724(승용차는 0.689)이며, 취업유발 효과는 10억 원당 19.3명(승용차는 8.1명)이다.

3.1 치유농업과 연계강화

-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치유농업은 보건, 의료, 복지 등 다른 분야와도 관련이 많으나 농촌관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
 -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촌 농장에서 이루어지며, 농촌관광과 농촌체험이 중심이 되고 있음.
- 교육농장, 체험농장, 돌봄 농업, 관광 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은 치유나 농촌관광 형식을 띠고 있으며, 급격히 증대하는 실정임.
- 실제 농업체험 및 관광활동의 치유효과가 인정⁴⁸⁾되고,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됨.
 -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⁴⁹⁾에서 치유관광은 농촌관광과 체험이라는 일회성 상품부터 치유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농업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나타남.
-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건강에 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며, 농촌 치유관광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대두됨.
-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으로 농촌 치유관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 및 건강과 힐링에 대한 수요증대를 농촌 치유관광으로 흡수하여야 함.
 - 농촌관광 경험률은 2003년 8.1%에서 2018년에는 41.14%로 꾸준히 증가하였음⁵⁰⁾.
 - 또한 코로나19 이후 농촌을 통한 치유나 힐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

48) 김경희, '치유관광, 치유농업 프로그램',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2021.5)에 의하면 부모 스트레스(56.5% 감소), 자녀 우울감(20.9% 감소), 공격성(21.5% 감소), 긴장 수준(17.3%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진청, 원예원 2018 자료 인용).

49)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의 이해, 농업기술의 길잡이, 222, p.8, 2022

50) 농촌진흥청, 농촌치유관광, 농업기술의 길잡이, 224, PP.9-11, 2021

3.2 치유관광 관련 법·제도적 기반 확충

- 정부 차원의 치유관광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
- 치유관광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 주도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고 있음.
- 치유관광 근거 법률은 많은 부문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⁵¹⁾.
 - 치유관광에 관한 통합적인 근거 법률이 없으며, 치유 관련 업무는 부처마다 각기 다른 법령으로 추진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치유관광’의 근거와 기능을 확충해야 함⁵²⁾.
- 치유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⁵³⁾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치유관광은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법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연구, 협력, 예산확보, 전문가 확보,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유관광 시설 확대와 치유관광 농장 등록, 그리고 치유관광 농장 품질관리가 필요함.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 시설이나 농장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함.

51) 특히 치유농업 관련 정책 추진, 치유농업사 교육, 치유농업사 자격 관련, 치유농업 품질 인증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연구용역추진 중이다.

52) 윤석열 정부는 ‘(가칭)치유관광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추진할 예정임(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참조).

53)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6조 7,076억 원이며 이 중 관광예산은 1조 2,261억 원에 불과하다. 주요한 내용은 23-24 한국방문의 해(100억 원), 세계 주요 도시 대상 한국 관광 홍보로드쇼(46억 원), 관광 서비스 혁신 성장 연구개발(67억 원), 웰니스 관광 육성(82억 원), 야간관광 특화도시조성(34억 원),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이다. 대체로 유럽에서는 치유농업 추진 관련 비용을 보건 복지, 고용,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부서에서 부담한다. 일부 사업은 농업영역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 치유농장에서의 시설이나 행위에 대한 중복 규제나 타법의 배제 여부⁵⁴⁾도 검토되어야 함.
-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치유 업무 추진 조직과 인력의 확충⁵⁵⁾도 필요함.

3.3 치유관광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치유관광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함.
- 치유관광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보건, 의료, 심리, 복지 분야와 관련되며, 치유 관광 참여자들은 효과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효과를 기대함.
- 관련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치유관광의 발전에 필요함.
- 또한 치유관광 효과에 대한 현행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 의학적, 심리학적 평가 방식이나 참여자의 만족도 중심의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평가 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대외신뢰도를 지속해서 높여야 함.
- 치유관광 농장에서의 의료행위에서 나타날 책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인문 사회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에 대한 실증연구에 추가하여 치유관광 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적 연구가 필요함.

54) 치유농업에 관련되는 법령은 치유농업법 이외에도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장애인 관련 법령, 기타 자치법규 등 많은 관련 법령이 있다(농촌진흥청, 2002 치유농업사 교재, P.54 참조). 이들 법령과 치유농업과의 중복이나 적용배제 등이 치유농업법의 당면과제이다.

55) 농진청의 치유농업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며 관련 인력도 파견자 중심의 7명에 불과하다.

- 농촌진흥청의 치유 관련 부문별 연구개발⁵⁶⁾ 결과를 활용하여, 인문 사회 연구기관에서는 성과를 확산해야 함.
- 다양한 치유농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⁵⁷⁾,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등의 교육을 확대해야 함.

3.4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화

- 우리나라 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콘텐츠 부족임.
 - 보고, 먹고, 마시거나 도심 백화점 쇼핑이 관광 정책의 주를 이룸.
 - 농어촌 관광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별로 없음.
- 관광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⁵⁸⁾가 필요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 한류의 세계화, 한류열풍을 치유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한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선진 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또한 농촌 치유관광을 글로벌화 해야 하며, 한국 농어촌 특성을 세계적인 관점으로 발전시켜야 함.
 - K-콘텐츠 매출액은 2020년 기준 128조 원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56)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현장 실증적인 자연과학적 연구에 중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 발굴 및 특성 분석,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원리규명에 치중한다.

57) 동국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치유농업사, 의학 분야 전문가, 치유농업 관련 외부 전문가 등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칭, <한국 치유농업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의사나 자문의·축택의 제도의 도입, 표준 치유프로그램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강조한다.

58)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선사항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식사 음료 등 먹을거리 품질향상이 44.1%, 즐길 거리, 체험 프로그램 내용개선이 39.7%를 나타낸다(농촌진흥청 농촌관광 실태조사, 2020).

- K-콘텐츠 수출액도 119조 원에 이르며, 정부는 2027년까지 23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⁵⁹⁾임.
-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은 2019년 2,870만 명에 이르며, 한류 팬수도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3억 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명상과 힐링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한류의 세계화, K-Culture, MZ세대와 융복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틱톡·쇼츠·릴스 등 숏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⁶⁰⁾.

3.5 치유관광의 사업화 추진

- 장기적으로 치유관광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치유산업은 융복합 분야로, 휴양관광, 바이오, 의료서비스, 웰니스, 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분야임.
- 치유관광 운영 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수익구조임.
- 치유관광 농장 운영에 대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함.
- 치유관광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창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와 연계는 물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도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치유관광을 수요자 중심의 비즈니스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59)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60) 김정현, '치유관광을 활성화하자', 농민 신문, 2022.07.18.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과 시사점¹⁾

김동훈*

1. 서론

- 정부는 발작물 중심의 주요 채소류(13개 품목, 19개 작형)에 대하여 채소류 주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목적은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과 농가의 조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임.
- 기존에 시행되었던 채소류 주산지 제도는 2014년 폐지제정된 고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채소류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상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품목별 재배면적이 변화하거나 일부 주산지의 이동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품목별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주산지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간 고시 기간이 상이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역할 및 당위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생산 여건 및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기존 주산지 지정 품목 외에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1) 이 글은 김동훈 외(2022)의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및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일부개정(2022.09.30.)되어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donghoon@krei.re.kr)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 확대를 통해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여건 및 기반 구축 여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최근 양배추를 신규 품목으로 포함하여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일부개정(2022.09.30.)되어 고시되었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경우 기존 품목 및 신규 품목에 대한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주산지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의 효율화 방안과 주산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사전적·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2. 채소류 주산지 제도 및 지정 현황

2.1. 채소류 주산지 제도

-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주산지’로 지정할 수 있음.
 - 주산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산지 지정 품목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함.
 - 주산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채소류 주산지 제도는 2004년 12월 「채소류 주산단지 고시」 이후 2014년 6월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을 폐지제정 하였으며, 최근 일부개정 전까지 2014년에 마련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옴.
 - ① 주산지 지정 고시 업무의 지방이양, ② 도시화 진전, 기후 변화, 품목 전환 등에 따른 주산지 변동, ③ 주산지 의미의 명확화 및 생산 여건 변화 등에 따라 2014년에 새로운 주산지 기준이 마련됨.
- 현재까지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정 기준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변화

구분	2004. 12	2014. 06	2022. 09(현재)
지정 품목	10개 품목	12개 품목, 18개 작형	13개 품목, 19개 작형
지정 단위	지역(읍·면·동), 면적(10~100ha)	지역(시·군·구), 면적(30~1,500ha)	지역(시·군·구), 면적(30~1,000ha)
지정 단지	전국 1,105개(139개 시군)	전국 110개 시·군·구1)	전국 183개 시·군·구2)

주 1. 2022년 2월 기준임.

2. 실제 고시된 주산지 수가 아닌 지정 기준에 따른 주산지 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 채소류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은 ①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배추(작형별), 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②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품목(당근), ③ 농가 소득 작물로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④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한 신규 품목(양배추)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버섯류 및 특작류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할 시 지정하며, 주산지 지정 시 품목명을 명시하도록 함.
 - 버섯류는 다단 재배(평균 4단)를 감안하여 연면적을 적용하며, 특작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참깨와 땅콩 이외에 주요 약용작물을 대상 품목으로 함.
- 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에 따라 30~1,000ha의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음.
 - 출하량 기준은 각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함.

현행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품목	지정 기준		
	지역	재배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톤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톤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톤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톤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톤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톤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톤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톤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톤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톤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톤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톤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톤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톤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톤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톤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톤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주: 양배추는 신규 품목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3. 채소류 주산지 지정 현황

- 2022년 2월 기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총 8개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 채소류 주산지는 총 110개 지역임.
 - 그러나 지역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주산지 지정 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²⁾.

- 최근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일부개정(2022.09.30.)되어 해당 지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산지 지정 지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채소류 주산지 지역 수 변화

단위: 개

품목	2017	2018	현재	품목	2017	2018	현재
봄배추	5	5	5	양파	4	6	6
여름배추	5	4	4	대파	4	4	3
가을배추	7	2	2	생강	3	4	6
겨울배추	1	2	2	당근	4	2	2
봄무	5	1	2	참깨	13	11	10
여름무	4	4	4	땅콩	7	2	2
가을무	6	3	5	버섯류	8	14	13
겨울무	2	1	1	특작류	23	18	18
고추	12	14	16	합계	121	106	110
마늘	8	9	9				

주: 현재 기준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일부개정(2022.09.30.) 이전 기준에 따른 것임.
 자료: 최병욱 외(2017),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역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 채소류 주산지의 품목 및 지역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 수가 많은 특작류(18개) 및 버섯류(13개)와 고추(16개), 참깨(10개) 등의 주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북(27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26개), 충남(19개), 강원(15개) 등의 순임.

2) 최근 지역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시기는 강원(2014. 12), 충북(2014. 9), 충남(2022. 2), 전북(2021. 1), 전남(2020. 4), 경북(2021. 8), 경남(2021. 12), 제주(2014. 10) 등임.

품목 및 지역별 채소류 주산지 지정 현황

품목	강원(15)	충북(4)	충남(19)	전북(8)	전남(26)	경북(27)	경남(7)	제주(4)
봄배추 (5)	영월, 평창	-	아산, 예산	-	-	문경	-	-
여름배추 (4)	강릉, 태백, 삼척, 정선	-	-	-	-	-	-	-
가을배추 (2)	-	-	-	고창	해남	-	-	-
겨울배추 (2)	-	-	-	-	해남, 진도	-	-	-
봄무 (2)	-	-	예산	고창	-	-	-	-
여름무 (4)	강릉, 홍천, 평창, 정선	-	-	-	-	-	-	-
가을무 (5)	-	-	논산, 당진	고창, 부안	영암	-	-	-
겨울무 (1)	-	-	-	-	-	-	-	서귀포
고추 (16)	홍천	괴산	천안,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정읍, 고창, 임실	해남, 영광	안동, 영양, 봉화	-	-
마늘 (9)	-	-	서산, 태안	-	고흥, 해남, 신안	의성, 영천	창녕	서귀포
양파 (6)	-	-	-	-	무안, 신안, 함평	-	창녕, 함양, 합천	-
대파 (3)	-	-	-	-	진도, 신안, 영광	-	-	-
생강 (6)	-	-	서산, 태안	-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	-
당근 (2)	-	-	-	-	-	-	-	제주, 서귀포
참깨 (10)	-	-	-	-	고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신안, 나주, 완도	의성, 예천	-	-
땅콩 (2)	-	-	태안	고창	-	-	-	-
버섯류 (13)	-	-	양송이 (보령, 부여)	-	새송이 (무안)	새송이 (경주, 김천, 청도, 영주, 경산)	-	-
					팽이(무안)	팽이(청도) 표고 (김천, 청도) 느타리(청도)		
특작류 (18)	참당귀(평창)	황기(제천)	구기자 (청양)	-	산수유 (구례)	참당귀(봉화)	오미자 (함양, 거창)	-
	황기(정선)					오미자 (상주, 문경) 산약(안동) 백수오(영주) 천궁(양양)		
	오미자 (홍천, 인제)	오미자 (제천, 단양)					녹차(하동)	

주: 2022년 2월 기준 지역별 주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현황이며, 실제 지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차이가 있음.
 자료: 지역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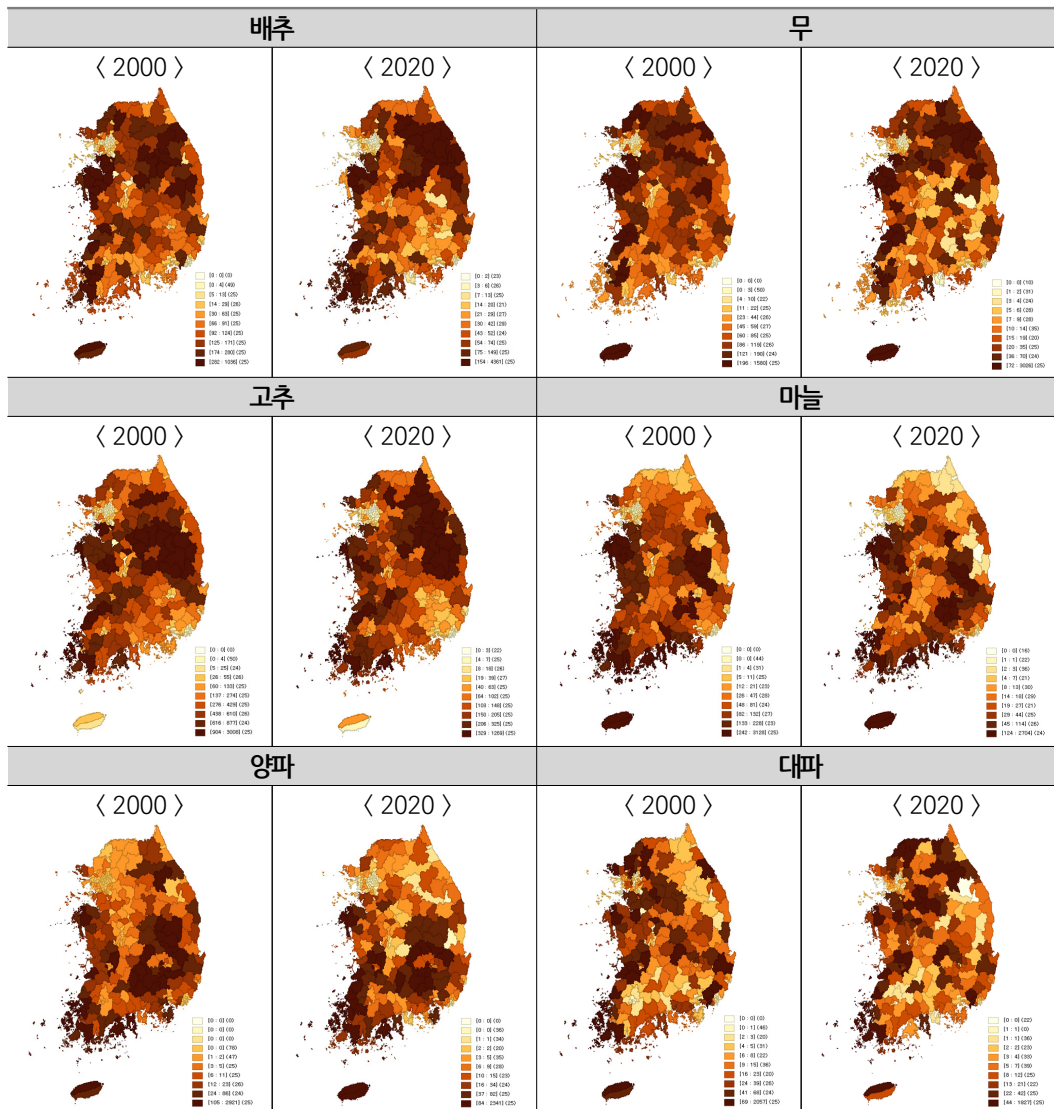
3.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필요성

3.1. 대내외 여건 변화

3.1.1. 기상환경 변화와 주산지 이동

- 지난 109년간(1912~2020)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기온은 매 10년당 0.2℃ 상승하였음. 또한 동기간 강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재배적지의 이동 및 축소와 대체작물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함.
 - 특히 노지재배 중심의 채소류는 타 작물들보다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상환경 변화와 함께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000년 대비 2020년 주요 노지채소류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산지역의 공간적 분포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배추 재배면적은 19.7% 감소하였으며, 충청권, 전북지역, 경상권에서 감소하고 강원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증가함.
 - 무 재배면적은 44.9% 감소하였으며,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감소하고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에서 증가함.
 - 고추 재배면적은 64.2%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충북지역의 감소율이 가장 높음.
 - 마늘 재배면적은 51.7%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전남지역의 감소율이 가장 높음.
 - 양파 재배면적은 19.4% 감소하였으며, 강원, 전남, 경상권에서 감소하고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 증가함.
 - 대파 재배면적은 21.3% 감소하였으며, 강원 및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경남, 제주, 충남지역의 감소율이 높음.

주요 채소류 생산지역의 공간적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1.2.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발효된 한·중미 FTA에 이르기까지 총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17건의 FTA를 체결함.
- 2021년 12월에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22년 2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음.
- 지속적인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대상 국가	진행 상황	비고
협정 발효 (17건/ 57개국)	칠레	발효(2004.4.1)	· 우리 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72.5%)
	싱가포르	발효(2006.3.2)	· 우리 측 양허율: 91.6% (공: 91.6%, 농: 66.6%)
	EFTA(4)	발효(2006.9.1)	· 우리 측 양허율: 98.5% (공: 99.7%, 농: 對스위스 34%, 對노르웨이 46%, 對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2007.6.1)	· 우리 측 양허율: 90.8% (공: 96.6%, 농: 63.2%)
	인도	발효(2010.1.1)	· 우리 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EU(27)	발효(2011.7.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페루	발효(2011.8.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미국	발효(2012.3.15)	· 우리 측 양허율: 99.9% (공: 100%, 농: 98.0%)
	터키	발효(2013.5.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52.5%)
	호주	발효(2014.12.12)	· 우리 측 양허율: 98.6% (공: 99.9%, 농: 89.5%)
	캐나다	발효(2015.1.1)	· 우리 측 양허율: 98.2% (공: 100%, 농: 85.9%)
	중국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3.0% (공: 97.6%, 농: 72.7%)
	베트남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5.4% (공: 99.5%, 농: 75.0%)
	뉴질랜드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8.3% (공: 100.0%, 농: 87.1%)
	콜롬비아	발효(2016.7.15)	· 우리 측 양허율: 98.7% (공: 100%, 농: 89.9%)
	영국	발효(2021.1.1)	· 우리 측 양허율: 99.5% (공: 100%, 농: 96.3%)
	중미(5)	발효(2021.3.1)	· 우리 측 양허율: 95.5~95.9%
협상 타결 (5건/ 15개국)	인도네시아	정식 서명(2020.12.18)	·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 관세 철폐
	이스라엘	정식 서명(2021.5.12)	· 수입액 중 99.9% 관세 철폐
	RCEP(14)	국회 비준(2021.12.2)	· 수입품목 중 72%(일본 46%)
	캄보디아	정식서명(2021.10.26)	· 수입품목 중 95.6% 관세 철폐
	필리핀	FTA 협상 타결 (2021.10.26)	· 수입품목 중 72.2% 관세 철폐

주: 2021년 12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1.3. 식생활 및 제조업체 이용 비중 변화

- 채소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소비량은 2000년 165.9kg에서 2020년 149.8kg으로 연평균 0.5% 감소하였음.

채소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전체	165.9	145.5	147.3	158.1	149.7	△0.5
5대 품목	88.6	72.8	101.9	110.9	110.9	1.1
배추	39.7	30.2	41.7	49.3	53.4	1.5
무	24.4	17.2	20.9	24.7	22.7	△0.4
고추	2.5	2.2	3.6	3.4	2.8	0.6
마늘	7.2	6.2	7.0	6.8	7.9	0.5
양파	14.8	17.0	28.7	26.7	24.1	2.5
기타	77.3	72.1	45.5	47.2	38.8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수입산 채소류의 증가에 따라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채소류 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당근과 양념채소류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채소류 이용 비중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엽근채류	배추	100.0	100.0	99.9	99.9	99.9	99.5	99.2
	무	98.1	94.0	100.0	98.1	97.6	96.9	97.9
	당근	76.9	79.6	74.6	80.4	77.8	68.1	72.6
양념채소류	건고추	67.2	62.4	62.1	59.3	62.2	52.6	41.9
	마늘	75.9	72.7	62.6	50.9	57.3	62.4	72.6
	양파	88.3	96.4	93.5	87.5	90.3	90.4	90.8
	파	90.8	89.0	87.1	81.0	85.4	83.4	87.1
	생강	90.1	91.9	84.8	89.8	94.4	93.7	83.6
특작류	참깨	8.2	7.5	8.7	6.6	5.7	9.1	8.3
	버섯	74.2	66.6	99.8	93.4	89.5	85.6	93.3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년도.

3.2. 채소류 지정 주산지의 위상 저하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정 주산지의 위상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지자체의 주산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지정 주산지의 전국 대비 재배면적 비중이 50% 미만인 품목들이 다수임.
- 또한 품목별 주산지 지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실제 고시 기준 간 차이가 발생하여 주산지 지정 기준에 대한 역할 및 당위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품목별 지자체 고시 및 지정 기준 간 차이

단위: %, 개

품목	고시 기준		지정 기준		차이(A-B)
	비중(A)	주산지 수	비중(B)	주산지 수	
봄배추	33.0	3	52.6	5	△19.6
여름배추	63.7	4	78.8	5	△15.1
가을배추	13.6	3	16.1	2	△2.5
겨울배추	89.0	2	68.4	1	20.6
봄무	23.2	1	23.2	1	-
여름무	73.6	4	64.0	3	9.6
가을무	16.7	4	8.4	1	8.3
겨울무	70.0	1	70.0	1	-
고추	23.2	12	20.8	9	2.4
마늘	57.1	9	45.3	6	11.8
양파	46.6	5	41.6	4	5.0
대파	32.9	3	46.6	7	△13.7
생강	64.6	6	68.2	7	△3.6
당근	58.3	2	66.1	3	△7.8
참깨	24.7	10	39.2	18	△14.5
땅콩	10.2	1	31.5	6	△21.3

주: 지자체의 주산지 고시 기준은 2021년 12월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3.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의 필요성 증대

3.3.1. 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증대

-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및 재배작물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지자체의 주산지 지정 고시 담당자(8명)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37.5%, ‘필요함’ 62.5%로 나타남.
- 신규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수급 및 가격안정의 필요성(43.8%)’, ‘전국 및 지역 내 집적화 수준(20.8%)’, ‘지역 특화품목 여부(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 선정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비중
수급 및 가격안정의 필요성	43.8
지역 특화품목 여부	18.8
노지재배 중심 품목	6.3
전국 및 지역 내 집적화 수준	20.8
관련 통계 기반 구축 여부	8.3
소비 증가 품목	2.1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임(1순위 3점/2순위 2점/3순위 1점).
 자료: 지역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3.3.2. 신규 지정 품목의 검토

- 신규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성이 있음.

(1) 지역별 재배면적 확보 가능 품목

- 대상 품목에 대한 지역(시·군·구)별 재배면적 통계가 확보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지역별 재배면적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신규 품목은 엽경채류 33개, 근채류 5개, 양념채소류 6개, 양채류 22개 등 총 66개 품목임.

(2) 재배면적 상위 품목

-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 규모화되어 있는 품목이어야 함.
- 2020년 기준 각 부류별로 기존 주산지 지정 품목을 제외한 전체 평균 재배면적보다 높거나 상대적인 비중이 높은 품목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엽경채류 7개 품목, 근채류 4개 품목, 양념채소류 1개 품목, 양채류 6개 품목으로 나타남.

(3) 노지재배 중심 품목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보다는 노지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어야 함.
- 신규 채소류 품목별 노지 및 시설 재배면적의 비중을 도출하여 노지 재배면적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엽경채류 3개 품목, 근채류 4개 품목, 양념채소류 1개 품목, 양채류 3개 품목 등 총 11개 품목이 도출되었음.
- 그러나 품목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양채류 품목 중 양상추를 포함하였으며, 콜라비와 비트는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음.
- 따라서 신규 품목은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연근, 알타리무, 우엉, 토란, 쪽파, 브로콜리, 양배추 등 총 10개 품목으로 선정하였음.

(4) 전국 단위의 집적화가 형성된 품목

- 채소류 주산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국 단위 집적화가 형성된 품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산지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
- 공간계량분석(Spatial Econometrics Analysis)을 통해 상위 품목에 대한 공간적 집적도를 분석한 결과 10개 품목 모두 공간적 집적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5) 관련 통계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품목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산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정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생산, 도소매, 소비, 수출입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품목이어야 함.
- 검토 결과 수출입 관련 통계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적인 통계 기반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수급안정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

- 신규 주산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안정의 필요성 유무이므로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10개 품목에 대한 2000~2020년 기간 동안의 생산량 및 도매가격에 대한 변이계수를 산출하여 품목을 선정하였음.
-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도출된 10개 품목 중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연근, 쪽파, 브로콜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역할 강화 및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품목별 주산지 지정 기준에 기반한 주산지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 주산지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함. 또한 채소류 주산지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필요성이 있으며,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른 지자체의 주산지 지정 고시 기간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
 - 배추와 무 외에 수급 및 가격안정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지역 및 출하 시기를 고려한 작형별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산지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주산지 지정 품목과 앞에서 도출된 신규 품목 외에 지자체의 여건 및 의지를 반영하여 원예농산물 중심의 신규 지정 품목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주산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산지 중심의 정책사업을 통해 사전적 수급 조절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의무자조금단체와 주산지 지자체에 수급안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지자체-생산자조직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주산지 중심의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자격이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주산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채소류 주산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산지를 확보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사전적·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의 ‘원예산업종합계획’ 내에 주산지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와 의무자조금단체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주산지 제도

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주산지 및 전국 동일 품목에 대한 마케팅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신규 주산지 지정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체적인 수급안정사업과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